설 자례상 비용 1.8%↓

metro

메트로 2015년 1월 5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징크스 깬 '기자' 드라마

불법 '개비 담배' 부활과 '롤링타바코' 인기 연초 담뱃값 인상으로 보통 한개비 당 300원에 판매하는 '개비 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이 늘고 있으나 관행 담배사업법은 담배포장지를 뜯고 1개비씩 파는 행위는 불법이고 판매업자는 1년이내 영업정지처분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개비담배 판매업자의 경우 영업정지를 당할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개비담배'와 함께 흡연자들은 기존 담배가격의 절반수준인 말아피는 '롤링 타바코'를 찾는 사람들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4일 오후 '개비 담배'를 팔고 있는 서울 종로의 한 가로가판대(왼쪽)와 강남구 역삼동의 롤링타바코 판매점(오른쪽) /연합뉴스 뉴시스

값 못올린 담배 구경하기 어렵다

신고 못한 메비우스·던힐 평소 대비 10%만 공급 "세금 늘어 팔수록 적자… 물량 줄일 수밖에 없다"

새해 첫날 담배에 붙는 세금이 일제히 올랐다.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이하 필립모리스)의 담뱃값은 각각 2000원씩 인상됐다. 이로인해 일부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선 그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개비 담배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하지만 1월 1일부터 메비우스의 국내 수입업체인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이하 JTI 코리아)와 던힐의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이하 BAT 코리아)의 담배 가격은 올리지 못 했다.

현행법상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가 담뱃값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판매 개시 6일 전까지 가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 두 회사가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회사들은 4일 현재까지 "글로벌 본사와의 협의가 늦어져 정부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신고할지도 정하지 못 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세미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일 이후 글로벌 본사의 정책이 확정되더라도 이들 2개 외국계 담배 회사의 제품 가격 인상은 빨라야 12일 이후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담배 소매점에서 가격이 오른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이 외에 JTI 코리아와 BAT 코리아의 담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메트로신문이 담배 유통 채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편의점 업계에 확인한 결과 이들 두 회사가 편의점에 납품 자체를 올해 들어 평소 대비 10%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가격 상승 후 판매하려는 소매상들의 '꼼수'까지 합쳐져 매대에서 이들 제품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담배 한 갑당 내는 세금은 담배소비세를 비롯해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가격이 오르기 전 한 갑당 2500원일 경우 세금 총액은 1550원이었다.

이번에 이들 세금의 합이 1768원 정도 더 오르게되면서 4500원 한 갑당 기준으로 세금 총액은 약 3318원이 됐다.

제품 판가를 인상하지 않았을 경우 담배 제조사가 정부에 내야 할 세금만 3318원이라는 것이다.

결국 본사의 의사 결정 지연으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한 JTI 코리아와 BAT 코리아는 2500원 짜리 담배 한 갑을 판매할 때마다 약 818원 적자가 나는 셈이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이들 두 회사가 지난 2일분 입고한 담배 물량은 평상 때보다 60% 이상 줄인데다 이 물량도 5일까지 4일 동안 판매하라고 말해 사실상 평소 대비 10%에 불과한 제품을 공급한 것"이라고 푸로됐다.

또 다른 편의점 관계자는 "다른 편의점 업체와 마찬가지 상황으로 BAT 코리아보다 JTI 코리아가 더 물량을 줄였다"며 "이 또한 새로 만든 제품이 아니고 이미 제조해 놓았던 보관 물량을 소매 시장에 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에 가격이 오르지 않은 한 외국계 담배 회사 관계자는 "팔면 팔수록 적자가 되는 구조에서 자구책으로 본사의 요금 인상안이 확정될 때 까지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은지기자 pms@metroseoul.co.kr

에볼라 의심 국내 의료진 '음성'

독일 병원 "발열 등 없지만 열흘 지나야 제대로 판별"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독일에 긴급 이송된 한국 의료진이 3일(현지시간) 채혈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베를린 샤리테 병원 측은 "현재로서는 발열 등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발열 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증상은 6~10일이 지나야 제대로 관찰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은 길게는 21일이다. 한국 의료진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지난달 30일(한국시간)을 기점으로 볼 때 이달 10일쯤 정확한 감염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병원 측은 추후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대비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격리병동을 담당하고 있는 프랑크 베르크만 박사는 "양성일 경우 약물을 즉시 투입하겠다"면서 "동물 실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된 약으로 환자의 에볼라 증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에볼라 감염이 의심되는 국내 의료진은 이날 오전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특별기를 타고 독일로 들어온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지난달 말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던 도중 끼고 있던 장갑이 찢어져 손가락에 주삿바늘이 닿았다.

/조선미기자 seonmi@

더 많은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웹에서 확인하세요

박지원 후보 기자간담회 2·8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4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경제법안 14개, 처리 '안갯속'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막바지 단계인 이번 주에 미뤄진 민생 경제법안 처리를 놓고 다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4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서비스산업 선진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장 마리나 점유·사용료 감만 등을 골자로 하는 마리나항만법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무위·기재위·복지위·교문위·미방위·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 중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아 그동안 처리가 지연돼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회가 현재 일정 외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리가 난망이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7성급 호텔을 짓기 위한 것으로 재벌 특혜라는 평가가 많다"면서 "지난해 정부·여당이 주장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 이후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늘었느냐"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주영기자

軍, '무기체계 선행연구' 전문기관에

방위사업청과 군이 무기체계의 부실한 선행연구와 연구개발을 막기 위해 선행연구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방사청과 군은 무기체계를 개발하기에 앞서 필수적인 선행연구를 소규모 기관이나 업체 등에 관행적으로 맡겨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4일 "군에서 요구하는 고성능, 고품질의 무기체계를 개발하려면 예산 무기체계의 선행연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사청이 무기체계 선행연구 전문기관으로 군 기관이나 방산업체를 위촉하면 국방기술품질원 등 전문기관을 관리 감독하면서 선행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방사청은 또 선행연구비와 연구개발비를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주영기자

최경환·박영준 국조 특위에 출석할까?

국회가 이번 주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본격 가동한다.

국조특위는 조사활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와 증인 채택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MB 정부에 한정하지 말고 자원외교 전계를 대상으로 조사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생산적인 국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MB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조 초점도 MB 정부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조 증인의 경우 야당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이 전 대통령이나 최 부총리 등을 국조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단순한 '망신 주기'를 넘어 전 현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맞섰다.

국조특위 활동기간을 두고도 여당은 국조 요구서가 채택된 시점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오는 12일 국조 계획서가 채택돼야 시작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주영기자

국회의원 김영란법 처리 나몰라라

바른사회운동연합 설문 300명 중 42명 응답 불과 원안 통과엔 대체로 찬성

공직자의 사정부패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20~30일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 등에 대한 설문을 벌인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응답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거듭 참여를 부탁했으며 끝까지 설문에 응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처리에 '무관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안내까지 했다. 이같은 요청에도 반응을 보인 국회의원은 전체의 29.3%인 88명이었고, 실제로 설문 문항에 응답한 의원은 42명(14.0%)에 불과했다.

응답자 42명의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 17명, 새정치민주연합 23명,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2명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을 수정안이 아니라 자신은 물론 친인척의 뇌물 공여도 금지하는 원안 내용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에 대해 홀로 '소극적 반대'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을 제외한 전원(41명)이 대체로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73.8%(31명)는 '신중한 입법을 위한 수고기간'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57.1%(24명)는 김영란법의 정착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국민의 바람과 달리 국회의원 대다수는 김영란법 통과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김영란법을 원안 그대로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늬기자 cjc [illegible]@metroseoul.co.kr

해산된 통진당 회계보고 자료 공개 4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회계보고한 정당 재산과 국회의원 후원금 총액, 남은 잔액 등이 공개 되고 있다. /뉴시스

박세일 영입 딜레마 빠진 김무성

친박 반발에 부딪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의 영입을 놓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장고에 빠졌다.

김 대표는 공석인 여의도연구원장으로 박 이사장을 일찌감치 내정, 지난해 말까지 임명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었지만 서청원 최고위원을 주축으로 한 친박(친박근혜) 주류측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 결정을 보류해 놓은 상태다.

당 관계자는 4일 "당헌상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여의도연구원장 임명안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일단 서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완구 원내대표 등 반대 입장을 밝힌 당직자들과 별도로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친박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 강화포럼' 의 송년회에서 주류측이 일제히 박 이사장의 과거 전력을 문제삼아 절대 불가' 목소리를 높여 뜻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주류측은 박 이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5년 수도 이전에 반대해 의원직을 버리고 탈당한데다 2012년 4.11 총선에선 새누리당에 맞서 보수성향의 '국민생각'을 창당한 전력은 거론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라고 반대하고 있다. /송주영기자 [illegible]

교수신문 새해 사자성어 '정본청원'

교수들이 새해 바람을 담은 사자성어로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의 '정본청원(正本清源)'을 꼽았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8~17일 전국의 교수 724명을 대상으로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를 설문한 결과 265명(36.6%)이 정본청원을 선택했다.

정본청원은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으로 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에서 비롯됐다.

이승환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정본청원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 "관피아와 적이사슬, 회흑두성이의 자원외교, 비선조직의 국정 농단과 같은 어지러운 상태를 바로잡아 근본을 바로 세우고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본청원은 지난해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건 사고로 그만큼 혼란스러웠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새누리당은 올 한해 정본청원의 철저한 개혁 정신으로 혁신의 아이콘이 돼야 한다"며 정본청원을 언급했다. /송주영기자

오늘 조응천 불구속 기소… '청와대 문건' 중간수사 발표

'비선실세' 의혹 해소될까

지난해 말 정국을 흔들었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5일 조응천(사진)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1일 수사에 뛰어든 지 36일 만이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부하 직원인 박관천 경정이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작성한 대통령 친인척·측근 관련 동향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을 제3자인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한모 경위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경정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3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유출 문건의 핵심 내용인 정윤회씨와 '십상시'로 지칭된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은 없었다고 결론 냈다. 정씨와 박지만 회장의 권력암투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미행설' 역시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비선실세 국정개입 여부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이유도 속시원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가 세계일보를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을 고발하고 정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맞고소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이정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집배원 안전운행 기원 발대식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서울지방우정청 소속 서울중앙우체국 집배원들이 2일 오전 '2015 집배원 발대식'을 갖고 신속·정확한 배달과 안전운행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지방우정청 제공

5조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적발

검찰이 작년 한 해 동안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377명을 입건해 이중 125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국세청과 공조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한 5조5706억원 규모의 가공 매출·매입을 적발하고 1619억원에 달하는 조세 포탈을 확인해 추징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세무자료상이 바지사장을 앞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간에 대규모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이를 건네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매입공제받는 수법으로 탈세가 이뤄졌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합의한 검찰과 국세청은 2013년 9월 중점 지방검찰청과 지방국세청을 지정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유주영기자

홍천강 꽁꽁축제 3일만에 15만 4일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강변에서 '제3회 홍천강 꽁꽁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6년근 인삼을 먹인 송어 맨손잡기 행사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다. 홍천군축제위원회는 지난 2일 개막 이후 3일간 15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단협에 첫 '노조 작업중지권'

사고 예방위한 차원

현대중공업이 노사가 사업장 안전이 미흡할 경우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단체협약에 처음 규정했다.

이 회사 노사는 2014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단협에 넣었다고 4일 밝혔다.

노사는 단협 '안전상의 조치(101조)'에서 "원칙으로 미비한 안전시설의 보완을 노조가 요구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뒤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단협 '안전보건관리자 선임(86조)' 부문에서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자(안전요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눈길을 끄는 또다른 단협은 조합원이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별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반보험 약관에 준해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10대 암(식도암, 췌장암, 백혈병,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등) 판정 시 3000만원을 지원하고 10대 암을 제외한 암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유주영기자

안동·의성 구제역 양성 확진…음성도

지난 3일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경북 의성군과 안동시에 있는 농장의 돼지가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온 의성과 안동의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안동은 2010년 11월 구제역이 발생해 이듬해 봄까지 전국적으로 퍼지게 한 진원지이다.

의성 농장의 경우 키우는 돼지 2336마리 가운데 어미돼지 32마리가 구제역 증상을 보였다.

안동 농장은 사육 중인 1350여마리 가운데 40여마리가 구제역 증상을 나타냈다.

방역당국은 의성 농장의 구제역 확진 돼지 32마리와 인근 농가의 사슴 6마리를 매몰처분했다.

또 안동의 확진 돼지 40마리는 물론 같은 축사에 있는 200마리도 추가로 매몰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추가로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있는지 임상관찰을 하고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4일 충북도에 따르면 3일 오후 음성군 삼성면 한 양돈농장의 돼지 30여 마리가 기립불능 등의 증상을 보여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유주영기자

경찰 "올 5대 범죄 중 성범죄만 늘 듯"

올해 5대 범죄 가운데 성범죄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3D프린터 총기 및 폭탄 사제 폭발물 등 신종 테러위험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치안전망 2015'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중 강간·추행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예년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성폭력범죄는 2010년 2만375건에서 2013년 2만8786건으로 3년 사이 41.3%나 늘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휴대전화 카메라의 성능 향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건수가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9월 현재 4547건으로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빼가는 '스파이앱', 이른바 '몸캠 피싱'(사이버 꽃뱀)도 올해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모바일 악성코드 발견 건수가 지난해 10월까지 118만188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2% 증가했고 올해도 작년보다 소폭 늘 것으로 관측됐다.

음란 영상을 녹화, 지인들에게 이를 퍼트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 피싱'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올해도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유주영기자

올 한·중 관계에 바라는 고사성어 '생경동음'

국립 한국방송통신대(이하 방송대) 대학원 실용중국어학과 원우회는 2015년 새해에 바라는 한·중 관계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생경동음(笙磬同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경동음은 관악기인 생황과 타악기인 경쇠의 소리가 어울려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다.

방송대 대학원 실용중국어학과 원우회는 매년 새해 한중 관계에 바라는 고사성어의 공모를 진행, 고사성어를 통해 한·중 관계의 현황을 재조명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오고 있다.

학부·대학원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대상으로 선정된 이성혜(대학원 실용중국어과) 씨의 공모작 "생경동음"을 비롯해 우수상에는 정의정 씨의 '화중동리([illegible], 한·중 관계가 성숙되어야 할 필연성)', 장려상은 정준호씨의 '류암화명(柳暗花明, 곤경 중 희망이 나타남)'이 선정됐다.

심사를 맡은 변지원 방송대 교수(대학원 실용중국어과 과정)는 "옛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고사성어를 통해 새로운 한해를 열어가자는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의 희망성어는 한·중 양국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잘 조화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새해에 바라는 한·중 관계를 잘 상징하는 희망성어"라며 심사 소감을 전했다. /유주영기자

판다에 개홍역바이러스

metro HongKong

3마리 확진… 당국 비상

중국 국보인 판다에게 개홍역바이러스가 감염,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산시성 희귀야생동물연구센터는 지난달 31일 이 연구센터에서 기르고 있는 판다에게 개홍역바이러스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센터는 현재까지 3마리가 확진을 받았고 3마리가 감염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덟 살짜리 암컷 판다 청청은 지난달 9일 오후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구센터에는 판다 24마리가 살고 있다. 바이러스를 확진한 날 연구센터는 판다 질병 예방 긴급 대비책을 세웠다. 발병한 판다는 개별 격리시켰고 단지는 대대적으로 소독 처리를 했다.

또 전국적으로 개홍역바이러스 치료와 판다 질병 관련 분야의 전문가 11명을 초청해 현장 지도와 구조, 예방 작업을 실시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판다는 방 하나에 한 마리씩 배치됐고 사육사도 방마다 한 명씩 배정됐다. 이미 발병한 판다의 치료와 다른 판다의 예방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감안, 판다 단지는 전면적으로 폐쇄·관리되고 있다.

연구센터는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아직 연구 중이며 우리에서 기르고 있는 판다한테 개홍역바이러스가 발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개홍역바이러스는 주로 개과와 고양이과 동물에게 주로 나타난다. 감염 동물과 직접적인 접촉 또는 공기 및 음식물을 통해 감염된다. /정리=조선미기자

새해 전야 10대 소년 살해돼

metro France

새해 전야 파리의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한 10대 소년이 살해돼 충격을 주고 있다.

프랑스 뉴스 채널 BFM TV에 따르면 피해자는 칼이나 유리병의 파편과 같이 날카로운 것에 흉작을 찔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독한 상태였으며 조지 퐁피두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비극적 결말을 가져온 난투극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오리무중 상태이다. 사망한 소년은 17세로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는 축에 속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사고 당시 신분증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평소 그의 또래 집단이 그를 폭행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그들은 술에 취해 주변 행인들에도 주정을 부려 경찰까지 출동했었다고 전해졌다.

한편 소년을 살해한 29세의 피의자가 붙잡혀 구류 상태에 놓였다.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돈 관리 못하는 청년들

metro brazil

포르투갈 청년들 일부가 자신의 재정 상황을 통제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웨덴 유명 금융 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15에서 24세의 연령대 청년층 16%가 재정 관리에 대해 무지하며 이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13%의 포르투갈 인들이 자신의 재정 상태에 불만족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포르투갈 인들이 직면한 재정 문제의 주된 원인에는 실업, 부실한 재정 계획, 급여 삭감 그리고 세금 인상 등이 있다.

또한 포르투갈 청년층 36%는 이런을 생각해본 적 있었으며 60% 및 50%의 포르투갈 인들은 정부 및 유럽 연합이 재정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리=정지연 인턴기자

오바마, 북한 숨통 조일까

대북 제재조치 행정명령 실효성 미국 내 여론 엇갈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 최근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새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두고 미국 내 여론이 엇갈린다고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제재 조치에 따라 외국 정부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를 주의할 것"이라며 제재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선'을 넘었다"며 "북한이 도발적 행동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제재를 하면 국제적 관심이 북한에 집중돼 국제금융사회에서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국제금융시스템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에 새로운 고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연구소 연구원은 "제재 조치가 북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해외 불법 시장에서 미사일을 판매하는 행위 등 북한의 주요 활동을 저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 조치가 상징적 의미를 지닐 뿐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북한이 광범위한 제재 아래 놓여 있어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사이버 문제는 물론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북미 관계가 악화하고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북한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 재무장관에게 북한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과 광업개발공사, 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한겨울 바다 수영 '푸픈' 벨기에 북부의 오스텐드에서 새해를 맞아 열린 바다 수영 대회에 이색 복장의 참가자들이 해변을 질주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4번째 한국인 추기경은 다음으로

교황, 새 추기경 20명 임명

역대 4번째 한국인 추기경 탄생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바티칸 라디오는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이 교황 선출권을 가진 15명을 포함해 20명의 추기경을 새로 임명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황 선출권이 있는 80세 미만의 신임 추기경 15명의 출신지는 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에티오피아·파나마·멕시코·우루과이·통가·뉴질랜드·베트남·미얀마·태국·카보베르데 등이다. 특히 미얀마·통가·카보베르데에서 추기경이 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0세 이상으로 교황 선출권이 없는 신임 추기경 5명 중에는 [illegible]루·모잠비크 출신도 포함됐다.

바티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서 추기경 배출 가능성이 큰 국가로 꼽았던 한국은 이번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임 추기경들에 대한 서임식은 다음 달 14일 바티칸에서 열릴 예정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에 앞서 다음 달 12~13일 모든 추기경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교황청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kmlee@

벨기에 무기수 '죽을 권리' 인정

정부 11일 안락사 실시

벨기에 정부가 무기수의 '죽을 권리'를 인정, 안락사를 실시한다.

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강간과 살인 등 혐의로 30년간 복역 중인 성범죄자 프랑크 반 덴 블리켄에 대해 오는 11일 브뤼주 교도소에서 안락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 덴 블리켄은 지난 2011년 안락사를 처음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면서 가석방과 정신과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더라도 나는 여전히 인간이다.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다.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했다.

그는 4년간의 싸움 끝에 결국 지난해 9월 안락사를 위한 법적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200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2013년에만 1807건에 이르는 안락사가 시행됐다. 지난해 벨기에는 말기 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법안도 승인했다.

/조선미기자

"PPT 강의 형식 주례사 보셨나요?"

충북의대 정형외과 김용민 교수가 PPT 주례를 하고 있다.(왼쪽) 실제 주례용 PPT 화면 /김용민 교수 제공

사람이야기

■충북의대 김용민 교수

결혼식 주인공, 신랑·신부의 성장과정·사랑 키우기 슬라이드로…

최근 주례사 대신 양가 부모의 덕담을 듣거나 편지를 읽어주는 식의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하는 신랑·신부들이 늘고 있다.

틀에 박힌 주례가 간혹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이벤트로 채워 이색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색 주례사가 등장해 화제다. PPT 강의 형식으로 꾸민 것인데 이 주례사의 주인공은 충북의대 정형외과 김용민 교수(56)다.

김용민 교수는 PPT 강의 주례사는 한 신랑의 제안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저도 처음 주례를 보았을 때에는 일반적인 주례사를 했죠. 2006년 제자의 주례를 맡게 됐는데 신랑이 '교수님 PPT 강의가 재미있으니 결혼식 주례사도 그렇게 해보시죠'라는 제의를 받고 처음 시도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일단 하객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아지니까 예식 분위기가 산만해지지 않아서 좋고, 신랑·신부의 사진과 이야기로 풀어나가니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주니까 당연히 좋지요."

지난 토요일 서울 논현동의 한 웨딩홀에서 열렸던 결혼식도 주례사의 시작과 함께 모든 하객들의 눈이 식장에 마련된 화면으로 고정됐다.

새로운 사진과 이야기를 담은 PPT 화면으로 인해 결혼 주례사 시간이면 흔히 볼 수 있는 웅성거리는 잡담 풍경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김 교수는 회상했다.

신랑 부모님의 30년 전 결혼식 사진과 신랑의 돌 사진을 담은 첫 화면에 이어 신랑이 태어나서 어느 학교를 졸업했지 등 성장과정을 사진으로 보여줬다.

"학교 동창 하객들은 모처럼 모교의 이름을 결혼식장에 와서 듣게 되었으니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신랑이 의대를 졸업하고 정형외과 수련과정을 겪는 과정과 국제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약상을 보여주는 사진에서는 하객들의 찬사가 쏟아졌지요."

이어 신부 부모님의 결혼사진을 시작으로 신부의 어린 시절 모습이 시대 순으로 등장했고 신부가 남자 동급생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사진에 대한 설명에서는 신부가 늘 인기의 정점에 있었다고 말하며 식장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두 사람이 사랑을 키워나가면서 서로 웃는 모습이 닮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PPT 슬라이드에서는 하객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개 뒤에는 당부와 축복의 메시지가 이어졌는데 이 역시 특별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그는 사진과 함께 주례사를 풀어나갔다. 동화는 결혼으로 끝이 나지만 현실은 결혼이 단지 시작을 의미하는 것임을. 그리고 결혼 후에는 두 사람만의 삶이 아닌 상대방의 가족, 친지 등 주위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야 함을 말하면서 영화 슈렉의 주인공에 빗대 설명했다.

주인공이 함께 있을 때의 행복한 모습에 이어 피오나 공주의 부모를 만난 슈렉의 당혹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많은 하객들이 공감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신혼부부가 각자 살아오다가 하나의 가정을 만드는 과정을 각자 다른 경로로 흘러온 남한강과 북한강이 양수리에서 한강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이름으로 합쳐 서해로 흘러가는 것에 비유한 것도 기억에 남았다고 회상했다.

"제가 부모님의 사랑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새삼 깨달아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고 신부 또한 오래도록 부모님의 노고와 사랑을 통해 성장한 귀중한 사람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며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김 교수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신부임을 보여주는 것이 주례의 의무라고 말했다.

"정형외과는 그 어느 과보다 강의 중에 사진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PPT 강의에 오랜 세월 익숙해지다 보니 이런 주례사가 맞는 것 같아요. 이 PPT 주례사는 당사자는 물론 모든 하객의 관심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함으로써 경숙한 분위기와 진정한 축복 속에 결혼 예식을 이끌어냈다고 봅니다."

/김수정기자 ku0015@metroseoul.co.kr

외식 창업 이것만은 유념… '생존전략' 5계명

안정성 확보 최우선

2015년 을미년 창업시장의 화두로는 극한경쟁이 손꼽힌다.

실제로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자영업 점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생계형 자영업자가 1년 후 83.8%만 살아남고 3년 후는 40.5%, 창업 5년 후는 29.6%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5년 안에 폐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다.

이 때문에 새해 창업시장도 치열한 생존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외식업 시장은 '출혈경쟁'이라 표현될 만큼 높은 경쟁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음식점을 고려중인 예비창업자들은 무엇보다 안정적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아이템과 입지 선정에 있어 구체적 결과 값을 얻을 때까지는 보류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가맹점이 급증하는 업종은 입지별 유사 업종 수와 연계해 따져봐야 한다. 고객의 분산은 곧 매출의 하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생계형 창업의 경우라면 가족들의도 매우 중요하다. 가족의 협력과 아이템 선정, 운영 방식등의 의견을 나누면 판단 미스를 줄일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만약 외식업 경험이 없다면 전문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의 문을 노크하는 방법도 좋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의 브랜드와 노하우를 사는 의미로 초보 창업자의 접근이 쉬운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육석을 기할 때는 유사 업종과 경쟁이 적거나 사계절 통합 평균 매출의 적정성이 유지되는 아이템을 선정해야 한다.

어영체 지호한관삼계탕 본부장은 "새해 외식업 창업을 고려중인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민감해야 할 점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며 "급하게 서두르지는 말고 시장에서 오랜기간 검증되고 상위 우주변에 경쟁업체의 진입이 힘든 창업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운기자 ssyoo@

market index <29일>

코스피	코스닥
1926.44 (+10.85)	553.73 (+10.78)

금리	환율
2.14 (+0.04)	1104.50 (+10.60)

이마트, 알뜰폰 시장 확대 이마트가 LG 유플러스와 제휴해 알뜰폰(MVNO) 서비스를 추가로 선보였다 /연합뉴스

삼성, 올해도 SSD 독주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SSD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올해는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 아이서플라이의 4분기 전망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SSD 매출은 38억9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점유율은 34%로 2013년과 비교해 2%포인트 상승했으며 2위인 샌디스크(18%)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아이서플라이는 올해도 삼성전자가 36%의 시장점유율로 2위 샌디스크(15%), 3위 인텔(16%)을 합친 것을 넘어서면서 독보적인 우위를 지킬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샌디스크, 인텔, 도시바 등 경쟁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MLC 기반의 SSD 시장은 줄어들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가 주로 생산하는 TLC 방식 SSD는 점차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양혜인 기자

로또복권						제631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	2	4	23	31	34	8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액
1등	6개 숫자 일치	3,976,883,532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56,609,472
3등	5개 숫자 일치	1,358,210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illegible] 종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 겸 편집인 [illegible]
사장 [illegible]
편집국장 [illegible]
광고문의 02)721-9858~9
독자센터 02)721-9801
2005년 [illegible]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illegible]

<대기업 총수 사면 논란>

"기회줘야 한다" vs "법 앞에 예외없다"

박용만 회장 "SK그룹 대변화 도약대"
WSJ "재벌 의존에 면죄부 문화 낳아"

"(최태원 회장·사진)충분히 처벌을 받았다. SK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 사회의 재벌 의존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면죄부 문화를 낳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사면을 놓고 재차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살리기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주장과 법 앞에서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법의 정의가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5단체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를 이끄는 박용만 회장이 먼저 시위를 당겼다.

박 회장은 지난 1일 "(대기업 총수에 대해)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일절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냥 편드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최 회장 경우는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화두를 던졌다.

박 회장은 "국가 경제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이다. 판결도 다 나왔고 처벌을 이행하는 중인데 마지막 하루까지 다 채워 100% 처벌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사면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경제단체장 가운데 그가 처음 이름 언급한 셈이다.

그는 "SK그룹은 이번에 (최 회장이) 나오면 가장 빠른 속도로 바뀔 것 같다. SK는 아이디어 업종, 첨단산업이 많다. 혁신적인 경정을 하고 있다. 한 번 기회를 주는 걸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내 5대 기업 중 하나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시간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절반가량을 복역했다.

박 회장이 발언한 다음날 미국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정치권에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사면 추진 움직임에 대해 "재벌 집착증"이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이날 '서울의 재벌 집착증'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가 필요로 한다는 이상한 이유를 대고 있다. 한국 사회의 재벌 의존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면죄부 문화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을 언급한 사실과 지난해 9월 황교안 법무장관이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힌 내용을 실었다.

신문은 그러나 "한국에서 그같은 국민적 합의는 없다"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 이후 비등한 재벌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주목했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자량용 LPG 800원대 진입 국제유가 폭락으로 차량용 LPG 가격도 하락, 5년만에 800원대 충전소가 등장했다 /뉴시스

지방 분양 '유망 아파트' 어디…

118곳에 총 7만8894가구 — 혁신도시 내 아파트 인기

지난 2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015년 지방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사업장 118곳 총 7만8894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과 계획적인 도시 개발로 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혁신도시 내 분양 아파트 인기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나 택지지구 등 배후 수요가 풍부한 곳에 분양하는 아파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들 지역은 직장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꾸준하고 상권이나 교육여건 등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 수요자들로부터 인기가 많다.

또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주거여건이 좋은 재개발·재건축 분양 물량과 역세권 단지 분양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 충남 천안 주공2단지 동문건설

동문건설은 1월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 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천안 신부동 동문굿모닝힐'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2층 23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2144가구로 그 중 1300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며 천안종합터미널과 지하철1호선 장항선 천안역이 인근에 있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신안초가 단지 바로 앞에 있으며 천안중, 천안북중, 복자여중, 고, 천안중앙고 등 교육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신세계백화점(충청점)이 걸어서 16분 거리이며 천안지하상가 쇼핑몰, CGV천안 등 천안역 주변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 충북혁신도시 B-6블록 영무건설

영무건설은 1월 충북 진천군 충북혁신도시 B-6블록에 '영무예다음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7개 동, 전용면적 75~84㎡ 총 520가구로 구성됐다. 단지 바로 옆에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초등학교 부지도 도로 사이에 있다.

상업지구가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할 전망이다. 평택제천간고속도로, 동영대전중부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도보 거리다. 법무연수원(2015년 예정), 한국교육개발원(2015년 예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7년 예정) 등이 인근에 있다.

/김두탁 기자 kim[illegible]

'멤버십 포인트' 알고 쓰세요

이동통신 3사가 단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뿐 아니라 멤버십 혜택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VIP·골드 등급에게 제공하던 무한멤버십 혜택을 연말로 종료했다. 대신 가족형 결합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늘린 'T가족 포인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족형 결합상품에 가입한 2~4인의 가족에게 매월 최소 3000~2만5000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KT는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멤버십 혜택을 늘렸다. VIP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CGV에 대해 각각 연 4회, 연 6회 무료제공되던 서비스를 통합해 연 12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멤버십 등급 체계를 기존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전월 이용 요금제에 따라 멤버십 등급을 매월 새롭게 부여한다. 기존 VIP 등급에 제공되는 연 6회의 무료 영화관람 혜택은 VVIP 등급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24회로 늘렸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

2015년 새해
대한민국 모두
氣가 사세요
새해는 '쿼드' 기술로 더 빨라진
광대역 LTE-A와 GiGA로 가득찬 세상
온 국민 모두 기가 가득,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GiGA Internet
10배 더 빠를꺼양
GiGA UHD tv
GiGA WiFi
쿼드 기술의
광대역 LTE-A로
더 빨라질꺼양
kt

희망로봇 기은센 기운찬 가족 파이팅 IBK기업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2015년 시무식과 대표 캐릭터 론칭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소개된 IBK 대표 캐릭터는 '희망로봇 기은센'과 '기운찬 가족'이다. 희망로봇 기은센은 고객과 평생 함께하는 은행인 IBK기업은행을 상징한다. /기업은행 제공

보험업계, 불황타개 대책 '부심'

CEO 교체·조직 개편으로 돌파구 모색

지난해 저금리 기조 장기화,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보험업계가 연말 연초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생명의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된 신용길 사장은 지난 2일 취임식을 겸한 시무식을 가졌다.

신 사장은 취임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정보보호 강화로 고객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총력 영업지원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장은 계열사로 편입되는 LIG손해보험과의 시너지효과 극대화와 방카슈랑스 외에 판매채널 다변화 등을 진두지휘할 예상이다.

삼성생명은 최근 투자사업부를 삼성자산운용으로 이관해 주식과 채권 투자부문을 일원화하는 등 저금리 장기화에 대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NH농협생명은 지난달 16일 한화생명 출신의 김학석 씨를 자산운용본부장(CIO)에 선임해 농협지주와 농협생명의 자산운용을 책임지게 했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희망퇴직자 540명을 확정하는 등 지난해 9월 취임한 김연배 부회장이 조직슬림화 작업에 돌입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손해율 급증에 따른 책임성 임원 인사와 관련한 조직개편이 주를 이뤘다.

현대해상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통해 자회사인 온라인전업 자보사 현대하이카다이렉트를 흡수 통합키로 했다.

현대하이카는 지난 2005년 현대해상이 100% 출자한 자회사다. 하지만 최근 자보 손해율 증가에 따라 최근 10년 누적 손실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말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남재호 사장을 비롯해 전체 임원의 절반가량인 16명이 전격 교체됐다. 반면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사장 겸 메리츠종금증권 사장(51)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하고 강영구 전 보험개발원장을 사장급인 윤리지원실장으로 선임했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10월 선임된 김옥찬 사장을 중심으로 신용과 보증영업망을 통합하는 인사·조직개편을 진행 중이다.

KB금융이 인수한 LIG손보도 현 김병헌 대표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고 막바지 KB손보 출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형석기자 khs84@

금감원 Q&A

'스스로 재무진단' 어렵지 않아요~

Q. 평범한 40대 남성 가장입니다. 은퇴자금 준비 등 고민이 많습니다. 무료로 재무진단이나 금융 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A.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상에서 스스로 무료 재무진단을 받을 수 있는 '참 쉬운 재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edu.fss.or.kr)에서 자신의 소득과 부채 수준, 지출과 같은 재무현황을 입력하면 현재 가계가 안정적인지, 은퇴준비가 적절한지 여부를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필요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 염려도 없으니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올해 안으로 맞춤형 금융자문서비스를 통해 부채와 금융투자 위험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금감원 본원 1층 민원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면 됩니다. /정리=김형석기자

'핀테크' 시장 공략 본격화

워치뱅킹 서비스··· 전담부서 앞다퉈 신설

주요 은행들이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핀테크'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을 융합한 서비스를 뜻하는 말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올해 최우선 금융정책 과제로 정하면서 은행들의 핀테크 서비스 가동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스마트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NH워치뱅킹'을 1월초 선보인다.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넘어 스마트워치 기반의 금융 서비스가 나오는 것은 한국에서 처음이다. 농협은행은 NH워치뱅킹을 통해 고객이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계좌잔액과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 스마트폰뱅킹 이용자는 워치 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 인증도 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클릭 한 번으로 송금이 되는 간편이체 서비스 등도 워치 뱅킹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워치뱅킹을 먼저 선보인 뒤 애플 워치 타이젠 운영체제(OS)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도 내놓을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전 단계인 '스마트 금융센터'도 오는 4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최근 기존 스마트금융부와는 별도로 핀테크 사업부를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상품과 금융서비스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손을 잡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은행 역시 스마트금융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핀테크 전략을 수립 중이다. 은행에서 가능한 모든 금융거래를 스마트폰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핀테크 전략을 챙기는 국민은행은 핀테크를 활용해 PB(프라이빗뱅킹)의 모바일화를 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고객의 소득과 직업, 연령 등까지 분석하는 빅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고객에게 맞는 재테크 투자전략을 수립한 후 모바일 계좌를 통해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핀테크 산업은 인터넷, 스마트폰 대중화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며 "시중은행들의 행보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핀테크 산업 육성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의 역점 과제는 바로 핀테크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핀테크 열풍은 향후 금융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며 1월 중으로 종합적인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116주년 기념식에서 이광구 은행장(왼쪽 넷째)과 박원춘 노조위원장(오른쪽 넷째)을 비롯한 임원들이 케이크커팅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 창립 116주년

"강한은행 위한 새출발"

우리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우리은행 본점 강당에서 임직원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1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임직원들은 우리은행이 지난 1899년 민족정통은행으로 설립된 이래 116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념영상을 관람했다. 또 이광구 은행장의 창립기념사와 박원춘 노조위원장의 축사,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갑영 연세대학교 총장 등 각계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도 전달됐다.

이 행장은 "정부의 금융개혁에 발맞춰 관습에 갇힌 태도를 과감하게 혁신할 것"이라며 "경제에 힘이 되는 강한은행으로 발돋움해 고객에게 신뢰와 사랑을 얻고, 민영화도 성공적으로 이루자"고 주문했다.

그는 또 지난 12월 30일 취임시에서 천명한 '24·365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금융산업을 선도적으로 혁신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24·365프로젝트'는 성공적인 민영화와 금융산업 혁신선도, 글로벌 시장확대라는 3가지 경영미션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전략, 5대 목표, 24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날 새벽 이 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70여명은 새해 첫 공식일정인 시무식으로 대한천일은행 은행장이었던 영친왕의 묘소가 있는 홍유릉을 참배함으로써 역사 앞에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1월 효과'… 외국인 순매수 '청신호'

"대내외 여건 우호적" 코스닥 550선 회복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코스피·코스닥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양띠해인 2015년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증시의 '1월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연초에 코스피보다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올해도 이어졌다.

우선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사자' 세로 돌아서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일단 첫 단추가 잘 꿰어졌다"며 "지난해 연말 장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외국인 매매가 순매수로 전환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첫 거래일 양상은 우려보다 양호한 수준"이라며 "(대내외 여건이) 어수선한 데 비해 시장에 맷집이 생긴 것으로 보이므로 어느 정도 악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증시 대내외 여건은 우호적일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고 국제 유가의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이 1~2월 중으로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 양적완화 시행은 내놓을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투자심리 개선에 힘을 실어줄 것"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5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내빈들이 개장신호에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군호 코넥스협회장,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천지환 코스닥협회장. /연합뉴스

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해 개장 첫날 코스피는 사흘 만에 반등하며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30일)에 비해 0.57% 오른 1926.44에 장을 마감했다.

개인이 1264억원어치 사들였고 기관은 1977억원 순매도한 가운데, 외국인은 장초반 순매도를 보이다가 '사자'로 돌아서 223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은 한 달여 만에 550선을 회복하며 중소형주 강세장을 이어갔다.

증시 전문가들은 전통적으로 1월에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는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 연구원은 "코스피 내에선 섬유의복과 귀금속광물, 서비스, 통신, 철강금속 등 그간 많이 빠졌던 업종들이 많이 오르고 다른 업종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주 초중반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은 물론, 매수세가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 35년간 코스피의 1월 월간 수익률과 같은해 연간 수익률의 방향(상승·하락)과 일치할 확률이 68.6%에 달했다. 10번 중 7번 꼴인 셈이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서진원 신한은행장, 직원에 떡국 배식 서진원 은행장(오른쪽)이 임원들과 함께 신한은행 본점 20층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직접 떡국을 배식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겨울철 불청객 '결로' 막는 방법

전순이 주부 경제학

겨울철만 되면 창문이나 외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심하면 곰팡이까지 생기는 일이 잦아진다. 바로 겨울철 불청객인 결로 현상이다.

결로는 겨울철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로 생기며 벽면 혹은 창문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말한다. 결로는 대부분 베란다와 창틀 주변에 자주 생기는데 오래두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벽이 갈라지기도 한다. 심할 경우 호흡기 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

우선 결로를 예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환기다. 환기를 자주 해줘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를 줄여주는 게 좋다. 최소 10분 정도 환기를 시켜주고, 실내 습도는 40%대를 유지하는 게 좋다. 집 전체에 골고루 난방을 해 기온 차이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벽 사이에 공간을 두는 것도 효과적이다. 겨울철 외벽은 습하기 때문에 결로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풍이 필수다. 가구와 벽 사이 10cm 정도 공간을 띄워놓고 통풍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

창문의 물기를 깨끗이 제거한 뒤 마른 수건에 중성세제를 몇 방울 묻혀 다시 한 번 닦아내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면 습기 방지 효과가 있다.

이 위에 단열재를 붙이면 바깥 찬 공기와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맞닿지 않아 결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미 생긴 곰팡이의 경우, 분무기에 물과 베이킹소다를 넣어 섞은 다음 곰팡이가 생긴 자리에 뿌려 깨끗이 닦아주면 된다. 또 축축하게 젖은 벽지는 드라이어로 꼼꼼하게 말린다.

유리창에는 물기를 깨끗이 닦고, 곰팡이 제거제를 발라주면 된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없어졌다고 해도 곰팡이는 재생력이 뛰어나 언제든지 다시 생겨날 수 있다. 곰팡이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선 결로 방지 벽지나 페인트를 사용해 시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리=[illegible]

'양띠' 금융CEO 행보 주목하라

윤종규·김창수·김주하… "경영혁신 드라이브"

올해는 '청양(靑羊)'의 해를 맞아 금융권의 '양띠 CEO'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띠 금융인은 올해 환갑이 된 '55년생'의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김주하 NH농협은행장,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이 대표적으로 손꼽힌다.

취임 한 달여 만에 LIG손해보험 인수를 최종 확정 지으며 KB금융 조직 인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KB금융그룹 윤 회장은 올해 '실행력 강한 조직'과 '일하는 분위기의 변화'를 강조했다.

윤 회장은 2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방향을 설정했다면 실행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업무 태도의 중요성을 수 차례 강조했다.

장애인들과 새해 첫 출발 KB국민카드는 신입사원들이 소외된 이웃과의 사랑 나눔으로 첫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신입 사원 55명과 임직원 봉사단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강남직업재활센터 근무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새해 나들이' 봉사활동을 가졌다. /KB국민카드 제공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주하 농협은행장(왼쪽부터)

그는 또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뤄 모두가 KB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활기찬 조직 인화 및 다니는 일터 만들기에 적극 나서자"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삼성생명 김 사장 역시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김 사장은 새해 첫날 임직원 110여명과 경기도 은갈산에 올라 해돋이를 맞이하며 "희망의 해를 맞아 임직원 모두가 천상운집(千祥雲集·천 가지 좋은 일이 구름처럼 몰려든다)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회사가치 극대화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자"고 말했다.

농협은행 김 행장도 "스마트금융·핀테크 등 비대면 거래 확대, 고령화 사회 가속화 등 금융시장 변화에 빈틈없는 준비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전사(全社)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와 지역별 세분화 전략 실행 등 농협 은행만의 차별화된 역량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시장을 선도하는 은행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희영기자 [illegible]

삼성·LG전자 'CES 2015'서 경합 예고

삼성 '퀀텀닷·타이젠' LG 'OLED·웹OS'
생활가전·PC 부문서도 기술력 뽐낼 듯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하는 CES 2015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컨벤션 센터에 설치한 새로운 SUHD TV 대형 옥외광고. /삼성전자 제공

LG 4K OLED

LG전자 모델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5에서 선보이는 올레드TV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내일 미국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쇼 CES 2015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기술 경쟁을 펼친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준비 중이다. 스마트폰과 TV 부문 등 다양한 제품에서 대결하고 있다.

◆ 스마트폰 야심작 공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첫 스마트폰 경쟁을 위해 '갤럭시S6'와 'G플렉스2'를 공개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세계 최초의 곡면 스마트폰으로 인기몰이한 G플렉스의 후속 모델인 G플렉스2를 출품한다. 이 단말은 4배 빠른 LTE 3밴드 LTE-A를 지원한다. 1GB 영화 한편을 2.x초만에 내려받는다.

반면 삼성전자는 CES에서 혁신제품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시리즈 최신작인 갤럭시 S6는 CES가 아니라 3월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MWC)에서 깜짝 공개할 것이라는게 업계 전망이다.

◆ TV 화질 두뇌 경쟁

TV부문은 패널과 플랫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패널은 삼성전자가 '퀀텀닷'을 LG전자는 '올레드(OLED)'로 경합을 벌인다.

삼성전자의 올해 무기인 퀀텀닷은 전압이나 빛을 가하면 크기에 따라 각각 다른 색을 내는 나노미터(nm) 크기의 반도체 결정이다. LCD 패널 백라이트에 퀀텀닷 필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색재현률을 올레드 수준으로 높일 수 있어 차세대 패널로 각광받고 있다.

LG전자가 전면에 내세우는 올레드는 백라이트의 LED 점광계 구조를 변경하고 성능이 향상된 컬러필터를 적용, 색재현율을 높였다.

두뇌는 삼성전자가 '타이젠', LG전자는 '웹OS 2.0'을 전면에 내세운다. 삼성전자는 타이젠을 통한 스마트홈 서비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올해 출시되는 스마트TV 전 라인업에 '타이젠'을 적용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LG전자는 기존 웹OS를 진화시킨 '웹OS 2.0'으로 맞선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기본 성능 강화 이외에도 넷플릭스, 아마존 등과 제휴해 UHD 콘텐츠도 늘렸다.

◆ 아이디어 상품 생활기전

삼성전자는 세탁기 사용 전에 미리 손으로 빨던 찌든 때 제거나 섬세한 의류 세탁 등의 애벌빨래가 가능한 세탁기 '액티브워시'를 선보인다.

LG전자는 '더블 매직스페이스'를 적용한 950리터 프리미엄 냉장고를 선보인다. 기존에 오른쪽 문에만 있던 '매직스페이스'를 왼쪽 문에도 적용한 제품이다.

/김병윤기자 yuwho@metroseoul.co.kr

새해 바라는 키워드 1위는 '희망'

경제 비관론 깊고 실업률 증가 전망

현실은 힘들어도 이상은 희망차게. 올해 경제에 대해 비관론이 짙어져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해보다 올해 좋은 일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새해 경제 전망'을 설문한 결과,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다.

37%의 응답자는 '지난해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설문과 비교해 13%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경제 비관론이 깊어졌음을 의미한다.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의견은 15%로 지난해보다 6%포인트 감소했다.

새해 실업자 추이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란 답변이 48%로 제일 높았다. 이어 '비슷할 것' 41%, '감소할 것' 11%로 전년 대비 비관론이 7%포인트 늘고, 낙관론이 5%포인트 줄었다.

한국갤럽 측은 "실업률 설문에서 2000년대에 비해 낙관·비관 격차가 줄고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40%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로서 경제 호황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 비관론 속에서도 새해 좋은 일을 열망하는 비율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현실은 각박해도 이상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잡코리아가 전국 성인 남녀 727명을 대상으로 2015년에 바라는 키워드를 설문한 내용에 따르면 '희망'이 응답률 49.2%로 1위를 차지했다. 소망하는 키워드 2위는 '성장'(37.3%), 3위는 '소통'(31.6%)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의 49.7%는 '새해는 지난해보다 희망적이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란 의견은 35.6%, '더 암울할 것'이란 응답은 23.7%에 그쳤다.

/정윤희기자 unique@

KIA RED MEMBERS

기아자동차 멤버십 브랜드 런칭

기아차 멤버십 브랜드 '기아레드멤버스' 론칭 기아자동차가 국내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멤버십 브랜드 '기아레드멤버스'를 새롭게 론칭했다. /기아자동차 제공

실수요자 중심 '실속설계' 뜬다

생활불편 줄인 평면 대세로…소음 저감기술 등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거주하는데 불편함 없는 실속 설계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구성 평면 커뮤니티시설 등 아파트의 기능이 상향평준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보다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차별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개발, 최근 특허까지 획득했다.

층격완충성능이 뛰어난 차음재를 개발해 가족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실과 주방에는 표준(20mm)보다 3배 두꺼운 60mm로, 침실에는 30mm로 시공했다. 경기도 광주시의 'e편한세상 오포3차', 오산시의 'e편한세상 오산세교'에 적용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최고로 평가되는 모 건설사가 층간소음 문제로 지역민들에게 인심을 잃어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 못하는 일이 있었을 만큼 층간소음은 입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라며 "이를 줄이기 위한 업계의 기술개발이 한창이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한정된 공간을 보다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평면을 만들었다. 김포 한강신도시 '푸르지오3차' 1510가구를 전용면적 59㎡ 소형으로만 구성하면서 타입별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한 것.

특히 874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A타입의 경우 판상형 4-bay 설계를 도입해 안방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주방 팬트리까지 확보했다. 이 외에도 타입별로 현관 2면 수납장, 알파룸 등을 제공해 알찬 공간 설계를 선보였다.

롯데건설은 서울 답십리16구역을 재개발한 '답십리 롯데캐슬 프레스티지'에 가구별 지하 전용 창고를 제공했다. /박선옥기자 psun@

지금이 바로

경영학을 공부할 때!

믿을 수 있는 방송대에서!!!

2015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2015년 1월 9일까지

넘치는 끼에 실속까지 더했다

임의택의 차차차

■뉴 미니 컨트리맨

지난해 국내 자동차등록대수는 2000만대를 돌파했다. 한 집에 차 한 대 이상 갖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남다른 차를 갖고 싶어 하는 이들은 늘어나게 마련. 이처럼 새로운 편가를 찾는 이들에게는 개성 강한 미니(MINI)가 딱 어울린다.

미니의 다양한 차종 중 컨트리맨은 '이단아' 같은 존재다. '미니'라는 호칭이 어울리지 않게 차체가 큰 데다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한 점도 독특하다.

최근 미니는 새로운 디자인과 장비를 적용한 뉴 미니 컨트리맨을 선보였다. 2011년 데뷔 후 4년 만의 업그레이드지만 변화 폭은 크지 않다. 비율이 좋았던 기존 디자인의 틀은 유지한 채, 라디에이터 그릴에 크롬 바를 더하고 안개등 밝기를 키우며 분위기를 바꿨다. 또 범퍼 아래에는 차체 손상을 막아주는 스키드 플레이트도 추가했다.

실내 역시 외관과 마찬가지로 작은 변화를 줬다. 3세대 미니 쿠퍼의 경우 속도계가 스티어링 휠 앞으로 옮겨진 반면, 뉴 컨트리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센터페시아 쪽에 그대로 뒀다. 대신 원형 속도계와 rpm 미터의 배경 컬러는 진회색으로 바뀌었다. 중앙의 원형 속도계 왼쪽에는 아이다비 맵을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마련돼 있다.

편의장비 추가도 눈에 띈다. 컨트리맨 ALL4 모델은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더라도 차량의 전자 기기를 조절할 수 있는 3스포크 스타일의 다기능 버튼 스티어링 휠, 천연 가죽 스포츠 시트 등 고급 인테리어 옵션이 대거 추가됐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할 경우 전화기능만 되고, 음악 전송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음악을 들으려면 USB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법뿐이어서 요즘 신차들의 추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뉴 미니 컨트리맨은 종전 6종류 모델을 정리해 쿠퍼 D와 쿠퍼 D 컨트리맨 ALL4, 쿠퍼 SD 컨트리맨 ALL4 등 4종류로 라인업을 새로 짰다. 시승차는 143마력을 내는 SD 컨트리맨으로, 218마력의 JCW 컨트리맨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성능을 지닌 모델이다.

2.0 디젤 엔진을 얹은 쿠퍼 SD 컨트리맨은 쿠퍼 D 컨트리맨보다 31마력이 높고 최대토크는 31.1kg·m을 낸다. BMW X1 18d의 엔진과 출력은 같지만 최대토크는 컨트리맨이 1.1kg·m 낮다.

엔진음은 동급 디젤 모델과 비교할 때 그리 시끄럽지도, 아주 조용하지도 않은 보통 수준이다. 최대토크는 1750~2700rpm에 맞춰져 있어 저·중속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게다가 최대토크 구간을 넘어서도 힘이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파워를 뿜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ALL4는 평소 앞뒤 50:50으로 구동력을 나누니 뒷바퀴가 구동력이 필요 없을 경우 앞바퀴에 100%의 구동력을 보낸다. 앞바퀴를 기본으로 4륜구동을 만든 특징이 여기서 드러난다.

225/45R18 타이어를 장착한 쿠퍼 SD 컨트리맨은 요철을 만났을 때 다소 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고속주행을 즐기지 않거나 좀 더 안락한 승차감을 원하는 이라면 205/55R17 타이어를 단 쿠퍼 D 컨트리맨을 고르는 게 낫다.

쿠퍼 SD 컨트리맨 ALL4는 기존 옵션 사양을 유지하면서 270만원 저렴해진 4900만원의 가격표를 달고 있다. 쿠퍼 D 컨트리맨 ALL4는 다양한 옵션이 추가되었으나 기존 모델보다 110만원 오른 4360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 한 점이 엿보인다. 미니 특유의 개성과 함께 공간 활용성까지 즐기고 싶다면 컨트리맨이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다.

/ferrari5@metroseoul.co.kr

▲한 줄 평가: [illegible] 소형 SUV. 블루투스 기능은 개선할 점이 있다. ▲총평: ★★★★(별점은 별 다섯 개 만점, ☆는 1/2)

쌍용차, SUV 대거 선봬

쌍용자동차(대표 이유일)가 신년을 맞아 주력 모델인 코란도 C의 파워트레인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렉스턴 W(사진), 코란도 투리스모, 코란도 스포츠 등 SUV 전 모델의 상품성을 대대적으로 보강한 2015년 라인업을 5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쌍용차는 2015년형 모델들을 새롭게 선보이며 스타일을 보강하고 고급 편의사양들을 신규 확대 적용했으며, 특히 전 모델에 신규 디자인된 스티어링 휠과 TPMS(타이어공기압자동감지시스템)를 기본 적용해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무엇보다 신규 사양을 대거 적용하며 상품성을 높이면서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가격을 낮췄다.

판매가격은 ▲렉스턴 W 2812~3877만원 ▲코란도 투리스모 2576~3654만원(11인승)/2799~3657만원(9인승) ▲코란도 C 2083~2695만원 ▲코란도 스포츠 2106~2823만원이다.

/정의석기자

<국산차 수입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i30(신형)			1 340	1 510	1 570
	YF 쏘나타		1 170	1 280	1 380	1 570
	제네시스	-	1 690	2 450	2 880	3 300
	투싼	-		1 580	1 760	1 950
기아	올뉴모닝	-		760	820	880
	쏘렌토R	-	1 730	1 900	2 090	-
BMW	뉴3시리즈	-	2 340	2 730	3 130	3 750
	뉴X5	3,250	4,160	5,020	5 250	-
벤츠	뉴E클래스	-	3,280	3 620	4 100	4 820
아우디	A4		2 500	2 840	3 010	3 500
	뉴A6	2,430	2,960	3 150	-	-

정보제공: [illegible]

현대차, 편의장비 강화 '에쿠스' 시판

에쿠스가 더욱 강화된 상품성을 갖췄다.

현대자동차는 5일부터 기능과 편의성이 급상된 멀티미디어와 고급 사양으로 무장한 2015년형 에쿠스를 본격 출시한다.

새롭게 선보인 2015년형 에쿠스는 내비게이션과 사운드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 선호사양을 파워트림에까지 확대 적용해 고객의 선택권을 넓혔다. 반광 크롬 재질의 새로운 라디에이터 그릴을 전 모델에 기본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2015년형 에쿠스에 2세대 고급형 내비게이션과 블루링크 2.0을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해 운전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차량 뒤쪽에 약 3초 이상 머물면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리는 전동식 스마트 트렁크(프리미엄 트림 이상)를 새롭게 적용했다.

특히 이번에 기본 적용된 고급형 내비게이션은 기존의 SD급(해상도 800×480) 디스플레이를 HD급(1280×720)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업그레이드해 선명도를 크게 높이고 주야간 시인성을 확보했다.

2015년형 에쿠스는 처음으로 내비게이션에 풀 3D 지도를 기본 제공, 실제 지형과 흡사한 화면을 운전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운전 편의성도 높였다.

또한 전 트림에 기본 탑재된 블루링크 2.0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공조제어와 차량상태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 컨트롤 ▲실시간 빠른 길 안내와 네이버 수소검색 연계 검색이 가능한 스마트 드라이빙 ▲에어백 전개 때 자동통보가 되고 차량 도난 때 도난추적이 가능한 세이프티 ▲운행정보 분석과 자체 차량진단이 가능한 차량 관리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차는 2015년형 에쿠스의 판매가격을 세단 모델은 ▲3.8 모던 6910만원 ▲3.8 프리미엄 7890만원 ▲3.8 익스클루시브 8910만원 ▲3.8 프레스티지 1억540만원 ▲5.0 프레스티지 1억1150만원, 리무진 모델의 경우 ▲5.0 프레스티지 1억4570만원으로 결정했고 기존 3.8 프레스티지 리무진 트림은 없앴다.

현대차는 3.8 프리미엄 트림의 경우 ▲고급형 내비게이션과 블루링크 2.0 ▲19인치 휠 ▲전동식 스마트 트렁크 ▲스마트 도어 클로징 등의 추가 고급 사양을 기본 적용하고 104만원 인상했다.

/정의석기자

올해를 국운 상승의 '골든타임'으로…

정론탁설
유 병 철
<언론인>

을미년 올해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광복 70주년이자 분단의 아픔을 겪은 지 70년이 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숱한 역경을 이겨내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성장의 그늘 속에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국가'로 전락한 채 빈부의 격차를 키우며 중산층이 무너져 가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정서는 갈수록 황폐해지고 정치권은 대립과 투쟁으로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정치권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낙인찍힌 지 오래됐다.

특히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하나 갈수록 이질성을 키우며 해빙무드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신년사를 통해 "남북간 최고위급 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성급한 판단은 이르지만 새로운 변화의 신호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예사롭지 않다. 우선 동북아시아가 심상치 않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은 아베체제가 강화되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중이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진지 50년이 되나 역주행을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올해 우리나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째를 맞아 피크타임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청와대를 비롯해 언적쇄신을 통해 새로운 진용을 짜야 한다. 언제부터 불거진 선박과 비박의 갈등도 말끔히 풀어 당정간의 결속을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올해에는 전국단위의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해이다. 노사정 타협도 어쩌면 산업평화가 어느 정도 기대된다. 바로 나라발전의 골든타임으로 판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기회가 항상 오는 것도 아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남미 여러 나라에서 경험한 '정체의 질곡'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무엇보다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정치권이 대타협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력을 모을 수 있다. 종교계 지도자들마저 한 결같이 신년 메시지로 '화합'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고 있다. 우리는 대립과 갈등이 얼마나 우모하고 소모적이었는지 체험할 만큼 체험했다. 이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환골탈태하여 큰 정치로 국민에 화답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국운 상승의 골든타임을 만들 수 있다.

자원외교 철저한 시비 가려야

뉴스룸에서
김 태 균
<경제·산업부장>

연초부터 이명박 정부가 진행한 자원외교의 공과를 놓고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치권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결정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비롯해 증인 산정 등을 조율하는 등 국정조사특위가 가동돼 확장이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감사결과는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의 하베스트사 인수당시,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 전 사장은 NARL의 부실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인수를 밀어붙였고, 급조된 현지 실사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 하베스트사를 시장 가격인 주당 7.31달러보다 훨씬 비싼 주당 10달러에 인수했다.

강 전 사장은 계약 이후 이사회 승인까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인수의 적정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며, 이사회 승인을 위해 실제 협상 내용과 다른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석유공사는 실제 9억4100만 달러 가치로 평가되는 NARL을 결국 12억2000만 달러에 매입, 2억7900만 달러(한화 3133억 원)를 비싸게 지불해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 전 사장은 직임을 당시 지경부 장관이던 최 부총리에게 전가해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006년 이후 추진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 대한 투자도 손실을 초래한 사례로 지적했다.

최근 정치권과 감사원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현 정부의 정치적 기획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힘겨루기설 등 많은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자원외교 논란에 대해 최대한 정치적 이유를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결정의 정당성, 손익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포토프리즘 — 미세먼지엔 '마스크'

지난 2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 노부부가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린채 걷고 있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이었으나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손진영기자 son@

맥락의 다양성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송치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땅콩 회항' 사건은 그녀의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복수' 관련 발언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재점화됐다. 회항 사건에 대한 시비와 노사관계, 가족관계 등이 하나로 버무려졌다. 조현민 전무의 발언은 회항 사건의 맥락에서 보면 망언에 가깝다. 잘못을 저지른 언니, 그 언니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동생의 맥락에서 보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재벌가로 통칭되는 사회구조에서 읽으면 또 다르다.

12월 28일 영하의 날씨 속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수요집회가 열렸다. 이제 55명밖에 남지 않은 분들을 위한 사회의 지지와 도움이 결실해 보면 1159번째 집회였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새해 소원은 더 이상 집회가 열리지 않아도 되는 날을 맞는 것이었다. 이 날 팔순 편림 89세 할머니들 옆에 초등학생들이 자리했다. 그들은 손팻말을 들고 추위를 견뎠다. 고사리 손이 얼어가는 속도보다 학생들의 시상이 열어붙는 속도가 더 빨랐을지 모르겠다.

배우 최민수 씨는 세밀 화두의 주인공이었다. MBC 연기대상에서 황금연기상 수상을 거부했는데, 세월호 사건에 대한 공감과 아픔으로부터 기인된 결정이었다. 세간에서는 그를 향한 찬사와 격려가 넘쳤다. 최민수 씨는 자신을 향한 환호에 "상식적인 게 비상식적인 것으로 비치는 세상이 안쓰럽다"고 말했다. 수상거부와 관련해 그와 함께 드라마를 제작했던 배우들, 방송관계자들, 심사위원들 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어떤 일이든 무조건적 해석과 입장을 취하는 건 위험하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종국에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개인이든 사회든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맥락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언니를 위로하는 것에 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동생, 일본에 대한 객관적 인지 기회를 얻는 초등학생, 드라마의 성공에 대한 기쁨 대신 부끄러움을 강요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맥락이 간과될까 아플 것이다.

다양한 맥락을 인정하면 시비를 가리는 게 쉬다. 서로간에 상처를 덜 줄 수 있다. 즐거움을 나눌 기회도 늘어난다. 맥락의 다양성을 이해하자.

/(전)비즈앤씨(www.biz-n.co.kr) 대표

복지부, 하려면 제대로 해라

기자수첩
황 재 용
<생활레저부 기자>

새해부터 담뱃값이 평균 2000원 오르면서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금연정책이 시행됐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한 복지부의 금연정책은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먼저 예상치 못한 갖가지 잡음을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4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인상된 판매가격을 신고하지 않아 기존 가격 그대로 판매되고 있는 '던힐'과 '메비우스'가 그 주인공으로 흡연자들은 지금 이 담배만을 찾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공급이 적고 높은 가격에 담배를 팔려고 내놓지 않는 소매상들의 꼼수도 적지 않다. 따라서 복지부는 우선 가격 인상의 시간차가 생겨 발생한 소비자의 혼돈과 불만, 판매업주들의 꼼수를 해결해야 한다.

음식점과 PC방 등의 금연구역 전면 확대로 인한 문제도 적지 않다. 상당수 업소가 아직 흡연을 방치하고 있고 고객들도 금연이라는 안내 문구가 무색할 만큼 전과 같이 담배를 피운다. 게다가 확실하게 금연을 시행하는 일부 업소에서는 흡연자들이 갈 곳을 잃어 가게 앞이나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실정이다. 이들이 내뿜는 담배연기로 주위 사람들 역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세수 확보'라는 의혹을 반드시 지워야 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담뱃값이 8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세수 확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담뱃세로 늘어난 재정의 올바른 사용 용도도 밝혀져야 한다. 더욱이 복지부는 확실한 사안 내로 경고그림 삽입 등의 비가격 금연정책도 챙겨야 한다.

즉 복지부는 지금 다른 것보다 '국민건강'이라는 최우선 명제 아래 올바른 금연정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신년맞이 할인전쟁 돌입

'청양' 관련 상품 기획전·마케팅 치열

유통 업계가 신년 맞이 할인 전쟁에 돌입했다. 연말 쇼핑 시즌에 대규모 물량을 풀어 끌어올린 분위기를 새해까지 이어간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연말부터 새해까지 반짝 특수를 누리는 결심상품을 비롯해 '청양띠의 해'와 관련된 상품을 묶어 기획전을 열거나 쿠폰 등을 뿌려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온라인 유통 업계는 건강·다이어트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새해 첫 할인에 나섰다. 특히 성장세인 모바일 채널에서만 진행하는 업체도 있다.

11번가는 양이 연상되는 상품을 최대 51% 할인 판매하는 '2015 양띠의 해 기획전'(사진 위)을 11일까지 연다. 할인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에 출석 체크할 때마다 200 마일리지를 적립해줘 이벤트 참여를 유도한다.

또 G9은 모바일 웹에서 '꼼꼼플랜의 시작' 기획전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다이어리, 스케줄러 등을 최대 62% 저렴하게 판매한다. 인기 웹툰 '낢'의 캐릭터가 돋보이는 '낢 월 캘린더'는 38% 할인된 3700원에, 주간 계획 세우기에 유용한 '2015 캘린더 데스크 플래너'는 7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옥션은 졸업·입학선물용 디지털 제품, 겨울 가전제품을 모바일에서 구매할 경우 포인트를 2배 적립해주는 '모바일 대축제'가 31일까지 연다. 니콘 DSLR, 레노버탭, 플레이스테이션4, 에이서 노트북 등 IT 상품과 유파 전기요 등 겨울 가전 상품이 준비됐다.

홈쇼핑과 편의점도 이벤트 진행에 가세했다.

GS샵은 방송 상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증정 프로모션을 벌인다. 5일부터 11일까지 GS샵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하고 31일까지는 9만원 이상 방송 상품을 3회 이상 구매 고객에게 LG생활건강의 울트라이와 테크 아웃도어 전용세제를 준다.

또 편의점 CU는 1월 한 달간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 '바나 모닝머핀' 등 아침식사 상품을 구매하고 멤버십을 적립하면 10% 할인해주고 향 7종, 관우유 3종을 최대 22% 상시 할인한다. 이 편의점에서는 최근 3년간 아침 시간대에 간편식품 매출 비중이 2.7% 증가하기도 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명동은 '그랜드 세일' 중
4일 오후 그랜드세일 중인 서울 명동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세일 중인 상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백화점의 차례상 차리기 캠페인 사진. /이마트 제공 사진DB

'설 차례상 비용' 전년比 1.8%↓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다소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담뱃값을 비롯해 상하수도, 교통비 등이 이미 올랐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것이어서 다행이다.

4일 롯데마트가 자사의 상품기획자(MD)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제수용품 구매가 시작되는 설 1주일 전 시점 주요 제수용품 28개 품목의 구매비용(4人 가족 기준)을 예상한 결과, 올해 설이 지난해보다 1.8% 하락한 18만7900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

제수 용품 28개 품목 가운데 11개 품목은 가격이 내리고, 6개 품목은 가격이 오르며, 11개 품목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과(5개, 개당 330g 내외)'의 경우 지난해 작과수 감소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과일 중 유일하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돼 전년보다 14.1% 가량 비싼 69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그러나 저장량이 증가한 '배(5개, 개당 650g 내외)'와 햇가리 영향으로 풍년을 맞은 '단감(5개, 개당 250g 내외)'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30% 이상(38.0%) 저렴하게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곶감(10개)' 역시 전년보다 16.9% 가량 저렴해진 4900원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밤(1kg)', '전대추(100g)' 등도 작황 호조로 올 설에는 지난해 대비 16~20% 가량 가격이 내려갈 예정이다.

채소는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고사리(400g, 국산)와 '도라지(400g, 국산)'의 경우 전년 대비 7% 가량 저렴한 각 1만4000원에 판매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우의 경우 지속적인 송아지 생산 감소와 이로 인한 사육 마릿수 감소로 가격이 올라 산적(우둔)은 1등급 400g 기준 전년보다 5.3% 가량 상승한 1만6000원에, 국거리(400g)는 11.8% 상승한 1만52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또 돼지고기는 돈가 상승으로 '후지(500g)'가 전년보다 13.3% 오른 425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수산물의 경우 '참조기(100g, 1마리)'는 국내 어획량 급감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전년보다 36.2% 오른 7900원에 판매될 전망이다. '떡국떡(1kg)', '밀가루(2.5kg)', '청주(1.8ℓ)' 등은 지난해와 동일한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영일기자

학교 기업, 자체 상품으로 해외 '노크'

독창적 제품 개발·마케팅도 적극 나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학교 기업들의 수출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다. 자체 제작 상품을 내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하거나 해외 마케팅에 대비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가야금 쇼핑몰 '아리울'은 호주와 동남아 등에서 주문이 이어지면서 상품이 품절되기도 했다.

특허 획득한 자체 기술로 제작한 가야금을 1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것이 판매로 이어졌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패션의류 쇼핑몰 '스타일고'는 중국 진출을 타진 중이다. 패션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운영한다는 점이 중국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패션 상품 품평회 등을 통해 한국 패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현지 고객들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 외에 검산대학교 학생들이 만든 단디푸드도 개발한 영·유아 식품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강강술래 '힐링 스파여행 이벤트'

리솜스파캐슬 천천향 이용권 증정행사
곰탕·불고기 등 최대 55% 파격 세일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겨울 여행 시즌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온천·스파를 즐기며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리솜스파캐슬 천천향 이용권을 증정하는 힐링 이벤트를 벌인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l.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서울에서 90분 거리에 위치한 천천향 이용티켓(1인2매)을 선물한다.

100% 천연 게르마늄 온천수(49℃)가 매일 공급돼 건강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아토피 피부를 가진 아이들은 물론 신경통·관절염·성인병 등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엄마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한편 강강술래는 오는 15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t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선 다용량(800ml-5봉, 15인분)과 소용량(350ml-5봉, 10인분) 곰탕으로 구성된 보양식 한우사골곰탕박스를 55% 할인된 3만8000원에 판매한다.

또 매장 인기메뉴로 구성된 '잘먹고잘사자세트(한우불고기500g+술래양념520g+원돈양념500g+돼지양념500g)'는 6만원(48% 할인), '건강기원세트(강강양념520g+한우불고기500g)'는 4만5000원(35%할인)에 파격가로 선보인다.

같은 기간 쇼핑몰 양띠(43, 55, 67, 79, 91년생) 기존과 신규가입 회원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3000점)를 적립해준다.

이와 함께 강강술래 전 매장에서는 1월 한달 간 신분증을 소지한 양띠 고객, 눈썰매장·스키장 티켓을 지참한 고객에게 냉면 상품권(1매)을 무료 증정한다.(중복적용 불가)

패션·뷰티업계 "청양의 기운 받으세요"

패션 뷰티업계가 청양의 해를 맞아 관련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양띠 마케팅'을 벌이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예로부터 양은 행복을 부르는 상징이었다"면서 "올해는 양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관련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속옷 브랜드 남영비비안은 2015년 을미년을 맞이 양 모양의 캐릭터가 앙증맞게 그려진 남녀 커플 트렁크와 커플 박사마를 내놨다.

남성용에는 빠란색 양을, 여성용에는 핑크색 양을 활용해 디자인했다. 커플 트렁크의 경우 남성용은 속옷으로, 여성용은 실내용 반바지

양무늬 속옷·스킨케어 세트 등 관련 제품 러시

로 입을 수 있어 실용성이 높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주얼리 브랜드 스와로브스키 역시 양을 소재로 한 크리스털 장식품 '조디악 시리즈'를 선보였다.

"자이니스 조디악-양"은 크리스털과 블랙 다이아몬드 등으로 제작된 우아한 모습에 평온 기원과 의미까지 보탤 수 있어 새해 선물용으로 적합하다고 스와로브스키 측은 전했다. 미니어처 버전으로 '조디악 양 미예'를 함께 출시했다.

뷰티업계도 양을 모티브로 한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한방 유아 스킨케어 브랜드 궁중비책은 청양띠 아기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을 위해 '아기양 캠페인 스킨케어 세트'를 제안했다.

이 제품은 조선왕실 왕자의 보양비법을 계승한 왕자의 첫 목욕물에서 유래된 오지탕 한방 성분으로 아기피부의 힘을 키워주는 유아용 스킨케어 세트다. 베이비 로션·샴푸·바스와 딸랑이 기능의 '목란양 인형'으로 구성됐으며, 한정판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에스티로더가 '양의 해'를 기념해 출시한 '매직 컴팩트'는 금빛 컴팩트 표면에 양이 그려져 있으며 양의 뿔 부분은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로 장식돼 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쌍춘년 '웨딩 특별전' 전개 현대백화점이 쌍춘년(雙春年)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전국 13개점에서 '쌍춘년 웨딩 용품전'을 벌인다. 올해는 음력 기준으로 1년에 입춘이 두번 있는 '쌍춘년'으로 이 때 결혼하는 부부는 백년해로 한다는 속설이 있다. 백화점 측은 이 기간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원 규모의 '가오리대전'과 가전, 가구 등 주요 혼수품을 대상으로 '웨딩 혼수 제안展'도 진행하고,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현대백화점 제공

탈모 걱정되면 영양 공급 샴푸를

타입별 모발관리 노하우

춥고 건조한 날씨에는 두피의 수분 함량이 떨어져 탈모가 악화되기 쉽다. 따라서 지루성·건성 등 두피 상태에 맞는 샴푸를 선택하고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두피 타입은 샴푸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손으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유분의 정도를 보면 쉽게 할 수 있다.

먼저 두피를 만졌을 때 딱딱하게 느껴지고 모근 주변이 번들거린다면 탈모가 시작됐을 확률이 높다. 또 샴푸한지 6시간 지난 후 두피를 만졌을 때 손가락 지문에 유분이 많이 묻어나면 지성 두피, 하루가 지났는데도 모발이 기름지지 않았다면 건성 두피다.

헤어 브랜드 JMW 관계자는 "모발의 굵기가 평소보다 가늘어진 탈모 진행성 두피의 경우 두피에 자극을 적게 주면서도 모근에 영양을 전달하는 탈모 전용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대신 낮 동안 두피와 모발에 쌓인 유분과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밤에 샴푸하라"고 말했다.

머리를 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피에 기름이 끼는 지성 두피는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돼 금새 기름지며 비듬이 생기기 쉽다.

지성 두피는 매일 머리를 감아 노폐물과 먼지 등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이때 두피를 자극할 경우 오히려 피지 분비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천연 성분이 들어 있는 샴푸로 두피를 진정시킨다.

수분이 부족해 모발이 푸석하고 두피에 각질이 일어나는 건성 두피는 건성 전용 샴푸를 사용해 두피에 필요한 유분은 남겨야 한다.

샴푸 시 손가락의 지문을 이용해 마사지하듯 문지르며 두피와 모근에 주는 자극은 최소화한다. 또 일주일에 1~2회 정도 헤어팩을 이용해 모발에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좋다. /박지원기자

부츠 속 지친 발 각질제거 후 보습

겨울철 발 관리 팁

겨울철 여성들의 필수 아이템인 '부츠'는 보온성은 탁월하지만 바람이 통하지 않아 자칫하면 발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다. 풋케어 브랜드 '나인풋' 관계자는 "다른 신발에 비해 한번 신으면 벗기 힘든 부츠는 땀이 쉽게 차고 세균 번식이 빨라 발 냄새, 각질 등을 유발한다"며 겨울철 건강한 발 관리 팁을 소개했다.

추운 겨울 부츠와 스타킹으로 꽁꽁 동여맨 발은 땀 흡수와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 냄새가 나기 쉽다. 발 냄새 제거의 핵심은 바람을 잘 쐬어줘 발을 보송보송하게 하는 것. 평소 면 소재의 양말을 신거나 신발을 자주 벗어주는 것이 좋다. 신발을 벗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쾌한 발 상태를 유지하게 도와주는 풋 미스트를 수시로 사용하면 된다.

피지선이 거의 없는 발은 다른 곳보다 각질층이 많이 생겨 쉽게 건조해진다. 여기에 앞뒤가 꽉 막힌 부츠를 오랜 시간 신으면 습한 환경으로 발 각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 특히 각질을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딱딱해져 더 이상 손 쓸 수 없거나 피가 나는 등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발 관리가 필요하다.

풋 전용 스크럽제를 사용해 각질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발을 불린 후 살살 문질러 주는 것이 좋다. 이때 발 전용 각질제거기를 활용하면 최소한의 자극으로 딱딱한 굳은살은 물론 미세 각질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단, 각질제거기는 꼭 마른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각질을 제거하면 죽은 세포와 살아있는 세포가 뒤엉켜 떨어져 나와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질 제거 후에는 영양과 보습 성분이 뛰어난 풋 전용 크림을 사용해 발 관리에 신경을 쓴다.

보습만 꼼꼼히 해도 각질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피부가 두꺼운 발 뒤꿈치 등은 풋 크림을 마사지하듯 여러 번에 걸쳐 바르면 보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겨울철 건강하고 매끈한 발을 원한다면 발 전용 제품을 꾸준히 사용해 세균과 냄새 등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원기자

가방은 가볍게! 여행은 즐겁게!

겨울철 대세 동남아여행 위한 필수 앱

해외여행 시에도 스마트폰이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여행지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KT경제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여행자 필수품'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여행 가이드북이나 지도, 카메라에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겨울철 여행지의 대세로 떠오른 동남아여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 해외여행 중 언어가 막힐 땐

여행 중 영어가 잘 통하지 않을 때는 'bbb통역'이 유용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언어 문화 NGO인 BBB코리아가 제공하는 bbb통역은 24시간 통역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어나 유럽권 언어 외에 태국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등 총 19개 언어가 서비스되며 통역을 원하는 언어를 골라 통화버튼을 누르면 해당 언어의 봉사자와 연결된다. 서비스는 모두 무료이며 통신사 로밍 요금제에 따른 통화료만 부담하면 된다.

◆ 동남아 여행 정보를 한눈에

동남아지역의 여러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아세안 여행'을 참고하면 된다. 한 권으로 떠나는 아세안 여행'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아세안 여행은 동남아 주요 관광지·식당·교통·숙박 정보 등을 담고 있다. 또 현지의 정보를 반영해 축제와 최신 지도 등의 내용도 제공되며 주요 관광지의 구글맵 지도보기, 카카오톡 정보 공유 기능 등도 탑재돼 사용이 편리하다. 게다가 국내에서 여행할 국가의 정보를 미리 다운로드하면 해외에서 별도의 데이터 요금 없이 조회할 수 있다.

◆ 한식이 생각날 땐

현지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거나 한식 생각이 간절할 때는 서유럽과 미국편으로 인기를 누렸던 '한식당 가이드북'을 활용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이 출시한 '한식당 가이드북-동남아편'에서는 동남아 대표지역의 우수 한식당 120곳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한식당의 주소와 전화번호, 영업시간 등의 상세 정보가 소개되며 한 번 다운로드하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곳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아울러 각국의 언어와 영어, 한국어 등으로 서비스돼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황재용기자

기차로 가는 산천어여행!

코레일관광개발, '화천 산천어축제' 3선 출시

코레일관광개발이 오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리는 '화천 산천어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ITX-청춘 기차여행 3선을 출시했다.

얼음낚시 체험료와 화천 농특산물 교환권 등이 제공되는 기차여행은 각 상품 코스별로 축제장 주변의 테마시설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특전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또 청량리역을 출발해 춘천역에 도착한 후 버스를 이용해 화천으로 이동하며, 축제에서는 얼음낚시와 루어낚시, 산천어 맨손잡기 등의 프로그램과 겨울 전통놀이 등이 준비된다.

/황재용기자

금연 성공, 입안 청결이 좌우

술 자리 줄이고 물 자주 마시며 양치질해야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담배를 끊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금연 후 생기는 불안, 초조 등 금단 증상과 허전함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담배를 손에 쥐게 만든다.

이런 금단 증상을 극복하고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속을 청결히 해야 한다. 입안이 텁텁하면 무엇보다 담배를 먼저 찾기 때문이다. 또 식후나 음주 중 담배가 생각나는 것도 이런 이유로 금연을 결심했다면 가급적 술도 멀리 해야 한다.

입안을 청결히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양치질이다.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이상 이를 닦는 '3·3·3법칙'을 지켜야 하며 간식을 먹었을 때나 잠들기 전에도 이를 닦는 것이 좋다. 게다가 이를 닦을 때 잇몸이나 혀도 같이 닦으면 보다 청결한 입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함께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흡연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치석이 잘 생기는데 스케일링은 구강을 깨끗하게 만들어 입안의 텁텁함을 없애줌과 동시에 충치와 잇몸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흡연 욕구를 떨어지기 위해서는 물도 자주 마셔야 한다. 물을 마셔 입안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면 담배에 의한 입냄새를 막을 수 있으며 건조해서 발생하는 세균도 억제할 수 있다.

임종빈 신촌다인치과 대표원장은 "금연 중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구강청정제로 입안을 헹궈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줄여야 한다. 또 필요하다면 병원이나 금연클리닉을 찾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oou138@metroseoul.co.kr

방학 때 챙길 우리 아이 성장발육

적절한 보조 영양제 사용 권장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각급 학교가 일제히 방학에 들어갔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부족한 학습을 메우기 위해 성장기 우리 아이들은 쉴 틈이 없다. 그러나 키가 크고 튼튼하고 건강해진 자녀를 기대한다면 방학기간은 부족한 성장발육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다.

성장기 어린이들에겐 식사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영양 권장량 중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 줘야 성장발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성장기에 최적화된 멀티비타민과 미네랄부터 정상적인 세포분열을 돕는 아연 영양제, 뼈 성장에 좋은 난황펩타이드 함유 영양제, 골아세포 활성화 특허물질인 콜라칸과 신삼배양근이 함유된 영양제까지 자녀에게 적합한 영양제로 방학기간 성적만큼 성장발육도 함께 키워야 한다.

한국솔가의 '캉가바이츠 비타민 & 미네랄'은 어린이 성장 발육에 최적화된 비타민A·B·C·D와 철분·엽산·칼슘·아연 등 15종의 비타민과 미네랄로 구성됐다.

대상 건강사업본부 대상웰라이프의 '키즈 액티브 아연 츄어블'은 아연을 주원료로 해 성장기 어린이의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정상적인 세포분열을 돕는다. 어린이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예쁜맛을 첨가했다. 츄어블 형태로 맛있게 씹어먹을 수 있다. 하루 1정 섭취로 아연 1일 섭취권장량의 100%(8.5㎎)을 섭취할 수 있다.

정관장 '아이패스 주니어'는 KGC인삼공사가 엄선한 6년근 홍삼에 뼈 성장에 도움을 주는 특허물질인 난황펩타이드와 국내산 참당귀, 황기 등의 천연 생약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 제품은 성장트리를 디자인에 적용했으며 40㎖ 파우치로 포장해 편의성을 높였다.

풀무원건강생활의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그린체의 '아이보감 키'는 신삼배양근을 기본으로 칼슘흡수를 촉진해 뼈를 만드는 골아세포를 활성화한다.

/정영일기자 jyim@

문화와 예술로 여는 2015년 1월

특급호텔,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

을미년 새해를 여는 2015년 1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여러 특급호텔에서 열린다.

먼저 롯데호텔서울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은 미술전 티켓이 포함된 신년 패키지를 선보인다.

또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는 객실에서의 편안한 휴식과 함께 서정적인 무대와 풍부한 감정을 절묘하게 담아낸 음악이 인상적인 뮤지컬 '헝키자 투툴즈'의 공연 티켓이 포함된 패키지를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과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음악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오는 신년 인빛예술단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소리빛 화지다'를 크리스탈볼룸(사진)에서 개최한다.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역량을 갖춘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선율간누난 인빛예술단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은 지난해에 이어 지난 1일 빈필하모닉 신년 음악회를 실황 생중계했다.

/황재용기자

www.hanatourist.com

상담문의 1566-0034

소년과 남자의 경계에서 배운 성숙함

◆ **1년 반만의 컴백이다. 스크린에 돌아오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마친 뒤 어떤 작품을 할지 고민이 많았다. 어떤 작품에서 어떤 모습을 하면 좋을지 고민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기술자들'의 종배였다. 약간 나빠 보이면서도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 **앳돼 보이는 이미지를 벗어내고 싶었던 건가?**

그렇지는 않다. 다만 기존에 갖고 있는 모습에 다른 모습을 얹어가고 싶었다. 가령 종배도 영화를 보면 밝고 장난스러운 모습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많다. 그런 점에 끌렸다.

◆ **영화에서 종배는 '배신자'로 묘사된다.**

종배에게 반전의 포인트가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많이 고민했다. 다만 완성된 영화를 본 뒤에는 종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 대한, 내 연기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 **해커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점을 신경 썼나?**

감독님이 만난 전문적인 해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실제 해커의 모습을 참고할 필요는 없었다. 해커는 프로그래밍으로 일하는 건데 그들처럼 똑같이 키보드를 친다고 해도 해커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냥 종배의 느낌을 보여주려고 했다.

◆ **종배의 성격은 외상에서도 잘 나타난다**

내 나이 또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평소 즐겨 입고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다. 다른 인물보다 스타일리시하게 보여줄 부분이 많은 캐릭터라서 신경을 썼다.

아역 배우로 연기 활동을 시작한 이현우(21)는 지난 2012년 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에게'를 통해 성인 연기자로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렀다. 이어 2013년에는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에 출연해 김수현, 박기웅과 함께 여심(女心)을 사로잡았다. 스무 살을 갓 넘겼지만 여전히 소년의 이미지가 남아 있는 앳된 얼굴이 이현우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한 가지 모습에만 머물 수 없는 배우에게 앳된 소년의 이미지는 언젠가는 지워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현우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마친 뒤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 그러나 그는 갑작스러운 연기 변신보다는 자신이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 연기의 폭을 넓히는 방향을 선택했다.

지난달 24일 개봉한 영화 '기술자들'(감독 김홍선)에서 천재 해커 종배를 연기한 것은 그런 고민의 결과였다. 영화는 인천 세관에 숨겨진 1500억 원을 40분 만에 훔치려는 범죄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현우는 종배 역을 맡아 김우빈, 고창석 등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 **김우빈, 고창석과의 작업은 어땠나?**

고창석 선배는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함께 작업한 인연이 있었다. 우빈이 형은 '아름다운 그대에게'에 잠깐 출연했을 때 연락처를 교환해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아왔다. 의지할 수 있는 형들이 있어서 좋았다. 촬영 전 배우, 스태프들 모두 함께 MT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며 금방 친해졌다.

◆ **조사장 역으로 나오는 김영철과는 일대일로 연기했다**

연기할 때 무거움이 있었다. 워낙 대선배님이라서 부담감도 컸다. 그런데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 선생님이 정말 잘 챙겨주셨다. 다른 작품에서 봤을 때는 막연하게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놀랐다. 그런 의외의 모습에 반했다.

◆ **반전의 키를 지닌 인물이라 연기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

그런데 오히려 종배가 지닌 반전을 관객은 물론 극중 인물들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어서 연기 자체는 편하게 할 수 있었다. 특정 장면이 어렵기보다 매 장면 비슷한 마음으로 열심히 찍었다.

◆ **이현우가 생각하는 종배는 어떤 인물인가?**

박쥐같은 애다. 철저하게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이다. (웃음)

◆ **'기술자들'을 마친 뒤 '연평해전'을 촬영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부터 연이어 남자들끼리인 영화를 찍고 있다 (웃음)**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의도한 것도 아니다.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재미를 느껴 선택하면 신기하게 다 남자들만 있더라. (웃음)

◆ **앳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한 결과는 아닐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하고 싶은 게 정말 많다. 멜로 영화나 따뜻한 로맨스도 하고 싶다. 남자들만 득실득실하게 나오는 영화도 해보고 싶다.

◆ **2014년은 '기술자들'과 '연평해전'까지 영화 촬영으로 바쁘게 보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후 연이은 영화 작업은 어떤 경험이 됐나?**

많은 걸 느꼈고 배웠다.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 배우로서 조금 더 성숙하고 깊이 있어졌다. 올해는 숨어있는 시기였다. 그래서 영화가 공개되면 어떤 반응을 얻을지 궁금하다. 2015년에는 조금 더 소통하면 좋겠다.

◆ **새해 계획은 무엇인가?**

일단은 '기술자들' 홍보에 전념할 생각이다. 그리고 차기작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

◆ **아직은 출연작에서 막내지만 언젠가는 형들의 위치에 설 텐데**

형들의 위치에 서고 싶다는 바람은 있지만 걱정은 안 된다. 3~4년 뒤면 지금 우빈이 형의 위치가 되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만큼 조급하거나 부담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 **아역 시절부터 연기를 하면서 후회한 적은 없다?**

없다. 오히려 점점 더 재미있다.

◆ **연기에서 느끼는 가장 큰 재미는 무엇인가?**

다른 배우들도 비슷할 것이다. 배우가 축복 받은 직업인 것은 여러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해보지 못한 캐릭터들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세상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 그게 가장 재미있다. 물론 연기는 독이 될 수도 있고 황금사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스스로 잘 조절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김진 부라보드제이엠 디자인/한슬이

'기술자들'의 이현우

예능 '무한도전' '토토가' 특집
영화 '국제시장'

새해 대중문화계 덮친 '복고 바람'

'무한도전'의 '토토가' 특집·'국제시장' 인기몰이
힘들고 지친 일상 달래주는 추억과 향수로 주목

2015년 새해부터 대중문화계에 복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과거의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힘든 일상에 지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해 눈길을 끈다.

지난 3일 안방은 또 다시 90년대로 돌아갔다. 지난해 말부터 큰 화제인 MBC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이하 '토토가') 특집 마지막 무대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무한도전'의 '토토가' 특집은 앞서 터보·김현정·S.E.S의 무대로 90년대 바람을 일으켰다. 이날 방송에서는 남은 7팀의 무대를 공개했다. 여전 대표 가수 굳 변함없는 가창력을 지닌 소찬휘, 10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지누션, 이번 특집의 유일한 발라드 가수인 조성모의 무대 등 90년대를 추억할 무대들이 쉼 없이 이어졌다.

또한 무대를 위해 소품까지 일일이 직접 만드는 장인 정신을 보여준 이정현, 세월을 무색하게 만드는 관능미의 엄정화, 그리고 한껏 여유로운 목소리로 히트곡을 부른 김건모의 무대가 펼쳐지면서 '무한도전'의 '토토가' 특집은 다시 한 번 가수와 관객, 시청자를 하나로 만들었다.

이날 방송은 지난주보다도 2.4% 오른 22.2%(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방송 직후 90년대 가수들의 노래가 각종 음원사이트 순위권을 오르내리며 복고 열풍을 이어갔다.

'무한도전'의 '토토가' 특집이 30~40대의 마음 속 추억과 향수를 자극했다면 영화 '국제시장'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마음을 파고들며 흥행 몰이 중이다.

지난달 17일 개봉한 '국제시장'은 개봉 18일째인 3일 오후 3시 700만 관객(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을 돌파했다. 4일 현재까지 누적 관객수 720만여 명으로 2015년 첫 1000만 영화 탄생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영화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부터 1960년대 파독 광부, 1970년대 베트남전, 1980년대 이산가족 찾기 등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룬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가족을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에 많은 중장년층 관객이 공감하고 있다. 역사에 대한 영화의 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같은 논란이 영화 흥행에 더 도움을 주고 있는 모양새다.

현실이 힘들 때마다 사람들은 과거를 되돌아보고는 한다. '무한도전'의 '토토가' 특집과 '국제시장'에 대중이 이토록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지친 삶에 잠시나마 위안과 희망을 얻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차트 역주행 이어 1위 후보까지

EXID, '쇼! 음악중심' '인기가요'로 대세 입증

'차트 역주행'으로 화제를 모은 걸그룹 EXID(사진)가 음악 프로그램 1위 후보에까지 오르며 대세를 입증했다.

지난 3일 토요일 방송된 MBC '쇼! 음악중심'에서 EXID는 '위아래'로 데뷔 후 처음으로 1위 후보에 올랐다. 걸그룹 에이핑크와 러브, 지디X태양의 '굿 보이'와 접전을 펼쳤다. 아쉽게도 1위는 에이핑크에게 돌아갔다.

이날 EXID 멤버 하니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여러분 저희 EXID가 처음으로 1위 후보가 됐습니다. 믿기지가 않네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EXID 하니가 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화도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1위 후보까지 오를 수 있었어요"라며 팬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EXID의 열풍은 4일 일요일에도 계속됐다. SBS '인기가요'에서도 1위 후보에 오른 것이다.

이날 '인기가요'에서 EXID는 지디X태양, 엑소와 함께 1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아쉽게도 1위는 지디X태양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차트 역주행'에서 시작한 EXID의 열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장병호기자

샤이니 종현, 솔로 무대 최초 공개

앨범 '베이스' 쇼케이스 8일 개최 예정
윤하·휘성 참여··음악 방송 활동 시작

그룹 샤이니 종현(사진)이 첫 솔로 앨범 신곡 무대를 최초 공개한다.

오는 12일 앨범 '베이스' 발표를 앞둔 종현은 8일 오후 7시 서울 삼성동 복합문화공간 SM타운 코엑스 아티움에서 쇼케이스 '베이스 오브 종현'을 연다.

종현은 이날 팬을 특별 초대한다. 신곡 라이브 무대를 비롯해 첫 솔로 앨범과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종현의 첫 솔로 앨범 '베이스'는 국내 유명 뮤지션들과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앨범의 완성도를 높였다.

종현의 음악적 감성과 실력파 뮤지션들의 개성이 어우러진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수록됐다. 특히 가수 윤하와 휘성이 협업한 뮤직션으로 공개되면서 앨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쇼케이스 참여방법은 종현의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종현은 쇼케이스 이후 9일 KBS2 '뮤직뱅크'를 시작으로 10일 MBC '쇼! 음악중심', 11일 SBS '인기가요' 등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illegible]

징크스 깬 '기자' 드라마

SBS 수목극 '피노키오'·KBS2 월화극 '힐러'
거대 권력과 맞서는 청춘…로맨스와 적절한 조화
"주류 언론 불신…시대적 요구"

기자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눈에 띈다. 그동안 방송가에는 언론을 다룬 작품에 대해 "흥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SBS 수목극 '피노키오'와 KBS2 월화극 '힐러'는 로맨스와 기자 이야기를 적절히 섞어 '징크스'에서 벗어났다.

'피노키오'는 시퍼런 첫발을 내디딘 네 청춘들(이종석·박신혜·김영광·이유비)이 진정한 기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담은 드라마다. 지난 1일 15회는 시청률 12.5%(닐슨코리아·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가져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조수원 PD·박혜련 작가의 박진감 있는 연출과 대본, 그 위에서 캐릭터에 숨기를 불어 넣는 출연진의 호연이 작품을 빈틈없이 만든다는 평가다.

작품은 청춘 멜로와 언론의 역할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전개된다. 기하명(이종석)·최인하(박신혜)의 로맨스, 이들을 향한 윤유래(이유비)·서범조(김영광)의 짝사랑이 코믹스럽고 때로는 애틋하다. "팩트보다는 임팩트"를 뉴스의 조건이라고 보는 송차옥(진경)과 기업 범죄를 은폐하려는 검게 권력 박로사(김해숙)의 계략에 맞서 '진짜 뉴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신입 기자들의 이야기가 인기 상승을 견인한다.

'힐러'는 부모 세대부터 자녀에까지 이르는 긴 로맨스를 다룬다. 정지나 사회 정의 같은 건 그저 재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며 살던 청춘들이 부모 세대가 남겨 놓은 세상과 대결하는 액션 로맨스 드라마다.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를 집필한 송지나 작가가 '모래시계 세대' 자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이 독특하다.

극중 서정후(지창욱)·김문호(유지태)·채영신(박민영)은 80년대 해적방송을 했던 부모를 둔 인물이다. 현재 업계 최고의 심부름꾼인 서정후는 시대의 언론인 김문호의 의뢰에 어리버리한 짝붕수로 신분을 위장, 인터넷 언론사 기자인 채영신과 선후배로 활약 중이다. 지난 8회 서정후·채영신의 키스신이 방영되면서 로맨스의 시작을 알렸다.

김문호는 입양되면서 잃어버린 조카 채영신을 지켜주는 키다리 아저씨로 그를 진짜 기자로 키우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힐러' 역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스타 기자와 인터넷 신문사 연예부 기자가 거대 권력에 맞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자의 역할을 이야기한다.

한 전문가는 메트로신문에 "기자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한꺼번에 노출된 데는 시대적 요구도 있다"며 "지난해 국가적으로 몇 가지 큰일을 겪으면서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대중은 드라마 속 정의로운 인물을 통해 '진짜 언론' '진짜 언론인'을 향한 갈증을 풀어 낸다"고 설명했다.

/전효진기자 jeanhj83@metroseoul.co.kr

테이, 유지태 마음 노래로

'힐러' OST '눈이 하는 말' 발표

가수 테이(사진)가 KBS2 월화극 '힐러' 세 번째 OST에 참여했다.

테이가 부른 '힐러' OST '눈이 하는 말'은 극 중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가슴 아픈 진실과 매주할 수밖에 없는 김문호(유지태)의 마음을 대변한다. 담담하게 흐르는 멜로디와 어떤 말을 눈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한 남자의 진심을 담은 노랫말이 귀를 사로잡는다.

한 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곡의 흐름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힐러'의 채영신(박민영)을 향한 김문호의 미소와 애틋함이 테이의 허스키한 목소리, 깊은 감정 표현과 어우러져 극의 몰입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OST 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넘치지 않는 감정 완급 조절이 백미"라며 "들을수록 빠져드는 노래"라고 '눈이 하는 말'을 소개했다.

테이가 참여한 '힐러' OST '눈이 하는 말'은 5일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전효진기자

이선희도 함께한 행복한 '동행'

가수 이선희가 KBS1 '동행' 출연진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이선희는 지난해 12월 23일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해 '이선희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기금 형식으로 1억원을 재단법인 해피빈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매회 '동행' 출연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선희는 이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 에너지를 잃지 않고 힘을 내 살아가면 손을 내밀어주는 이웃이 많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행'은 '사랑의 리퀘스트' 후속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다룬 휴먼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방영된다. /전효진기자

이선희

200만 유혹한 '기술자들'

부산서 무대 인사… 장미꽃 이벤트로 '환호'

영화 '기술자들'이 2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부산에서 무대인사로 관객에게 감사를 전했다.

지난달 24일 개봉한 '기술자들'은 개봉 10일째인 지난 2일 누적 관객수 200만명을 돌파했다. 3일까지의 누적 관객수는 214만9105명으로 새해에도 흥행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술자들'의 김홍선 감독과 출연 배우 김우빈 이현우 임주환·신승환 조윤희는 200만 돌파를 기념해 지난 주말에 부산을 찾아 관객의 성원에 보답했다. 이번 무대인사에서는 추첨을 통해 뽑힌 관객에게 장미꽃을 선사하는 이벤트로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김우빈은 "새해를 기쁘게 맞이했는데 '기술자들'어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사랑한다"고 말해 관객의 큰 환호를 받았다. 이현우도 "부산에 꼭 오고 싶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술자들'은 인천 세관에 숨겨진 1500억원을 40분 안에 털기 위해 모인 범죄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전국 극장가에서 상영 중이다.

/유예호기자 salar@metroseoul.co.kr

하지원·강호동 '의리'

KBS2 새 예능 '투명인간' 첫 게스트 출연

배우 하지원(사진)이 KBS2 새 예능프로그램 '투명인간' 첫 번째 게스트로 출연한다.

'투명인간'은 강호동을 비롯한 정태호 김범수 하하 강남 봉성진이 진행한다. 여섯 MC들은 일일 게스트와 함께 무료한 일상에 지친 직장인을 찾아가 '투명인간 놀이'를 하며 특별한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하지원은 6년 전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한 이후 강호동과 친분을 이어왔다. 강호동을 돕기 위해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털털한 성격과 남다른 승부욕을 지닌 하지원이 오랜만에 출연한 예능에서 어떤 활약을 할 지 방송 전부터 기대가 크다.

하지원은 첫 촬영에서 신입사원을 연상하게 하는 체크 정장을 입고 등장했다. 당당한 직장 여성다운 모습에 '투명인간' 여섯 MC들뿐만 아니라 현장 직장인들도 크게 좋아했다는 후문이다.

'투명인간'의 한 관계자는 "하지원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여섯 MC들과 적절히 어우러져 즐겁게 촬영했다"며 "덕분에 포문을 제대로 연 것 같다. 그동안 쉬게 될 수 없었던 하지원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으니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원의 활약은 오는 7일 오후 11시 KBS2 '투명인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효진기자

"배우로서 살게 해준 건 가족"

'이별까지 7일'서 열연한 츠마부키 사토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악인' 등으로 잘 알려진 일본 대표 배우 츠마부키 사토시(사진)가 '이별까지 7일'에서 열연을 펼쳐 화제다.

최근 '이별까지 7일'의 일본 프리미어 시사회에서 츠마부키 사토시는 촬영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는 시나리오를 읽고 스토리에 반한 그가 주인공의 미묘한 감정을 모두 표현하기 위해 열정과 노력을 쏟았기 때문이다. 해외 언론들도 '이별까지 7일' 속 츠마부키 사토시의 연기에 대해 "연기 인생 중 최고의 열연"으로 극찬을 보냈다.

츠마부키 사토시는 한 인터뷰를 통해 "나는 차남이다. 형이 있기에 가족의 일은 내가 짊어지기보다 요령을 피우며 지냈다.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 장남을 연기하면서 우리 형이 그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한 "연기로부터 도망가고 싶었을 때가 있었다. 그때 배우로서 인생을 계속 살게 해준 건 가족들이었다"며 "우리 영화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처럼 자신의 가족에 대해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별까지 7일'은 죽음을 앞두고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간절한 1주일을 그린 영화다. '행복한 사진'으로 일본 아카데미 8개 부문을 수상한 신예 이시이 유야 감독의 작품으로 오는 15일 개봉 예정이다.

/유예호기자

변요한 '미생'으로 스타덤에…

'택시'로 첫 예능 출연 무한 매력 발산

tvN 금토드라마 '미생'으로 스타덤에 오른 신예 배우 변요한이 "현장토크쇼 택시"로 무한 매력을 발산했다.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tvN '현장토크쇼 택시'(이하 '택시')의 '미생 신년회' 특집에서 변요한은 숨겨둔 매력을 보이며 첫 예능 출연 신고식을 성공리에 마쳤다.

지난 2일 방송된 1부에서 변요한은 첫 예능에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강소라의 이상형을 찾는 시간에는 '뿌잉뿌잉' 애교를 보여주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슈퍼스타 미생' 선정을 위한 장기자랑 시간이 펼쳐졌다. 변요한은 모든 미생에게 바치는 음악으로 '말하는 대로'를 선곡해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였다. 등장부터 90도 깍듯한 인사로 심사위원 점수를 후하게 받은 그는 출중한 노래 실력까지 인정 받으며 '미생'의 슈퍼스타로 선정됐다.

한편 변요한은 '미생' 종영 이후 광고와 화보 촬영으로 바쁜 활동을 소화하며 대세 신인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유예호기자

tvN '현장토크쇼 택시'의 '미생 신년회' 특집 방송캡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오른쪽) /연합뉴스

한국 축구 새해 첫 승리

슈틸리케호 사우디 상대 2-0 승리
이정협, A매치 데뷔골… 확실한 '눈도장'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승리했다.

55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책골과 이정협의 A매치 데뷔골을 앞세워 올해 첫 국가대표 평가전을 2-0 승리로 마무리했다.

한국 축구 대표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평가전은 4일 호주 시드니 파라마타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후반 초반까지 고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일방적으로 밀린 전반전, 유일하게 빛난 태극전사는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전반 17분 구자철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강한 왼발 발리슈팅을 날렸다. 슈팅은 상대 골키퍼 손과 크로스바를 맞는 데 그쳤으나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을 아찔하게 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이근호·구자철·김진수·김지현을 빼고 남태희·한교원·이명주·김승규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한국은 후반 8분 사우디아라비아에 두 차례 연속 슈팅을 허용하는 위기를 맞았지만 수비수들의 몸으로 막아내며 실점을 면했다.

팽팽한 동점 상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책골로 깨져 섰다. 후반 22분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이 프리킥으로 공을 골대 쪽으로 보냈고 공격에 가세한 중앙 수비수 장현수가 헤딩으로 연결하려던 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수 오사마 하우사위 몸에 공이 맞으며 자책골로 연결됐다.

슈틸리케 감독은 후반 27분 조영철 대신 이정협을 투입했다.

후반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진 가운데 한국은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왼쪽 측면에서 김창수가 내준 크로스를 이정협이 골 지역 정면으로 패스, 추가골을 만들면서 추가 득점했다. 이로써 A매치 데뷔전에서 데뷔골까지 기록한 이정협은 슈틸리케호의 신데렐라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다.

2015 호주 아시안컵 개막을 앞두고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 슈틸리케호는 오는 10일 캔버라에서 오만과 A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손호진기자 jsonh@metroseoul.co.kr

김연아, 후배 격려·응원 나선다

피겨 종합선수권대회 시상자로 선정

지난해 은퇴한 '피겨 여왕' 김연아(25·사진)가 국내 최고 무대인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시상자로 '김연아 키즈'를 향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4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김연아는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제69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마지막 날인 9일 시상자로 나선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한 김연아가 아이스쇼가 아닌 정식 국내대회에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 종합선수권대회는 김연아의 은퇴 이후 2018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한국 피겨를 이끌 유망주들이 실력을 겨루는 무대인만큼 후배들을 향한 격려가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소치올림픽에 김연아와 함께 출전해 큰 무대 경험을 쌓은 박소연(신목고)·김해진(과천고) 등 유망주들이 총출동한다.

김연아는 유망주 선수들의 기를 북돋워주길 바라는 대한빙상경기연맹 측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이번 대회 시상자로 나서게 됐다. 봉사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김연아는 시상 외에 다른 형식으로 어린 선수들을 격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연아는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학업에 열중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후배들의 훈련장을 방문해 일종의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고는 했다.

올 시즌 시니어 무대에 처음 나선 박소연 등은 김연아의 조언에 힘입어 표현력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병호기자

배상문 PGA 하와이 대회 출전

"합법적인 체류기간 내 머물 것"

국외여행 기간 연장 실패로 선수 생활 중단 위기에 처한 배상문(29·사진)이 다음주 하와이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하와이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PGA 투어 홈페이지는 4일 "배상문이 군 입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9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리는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 나간다고 전했다.

배상문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2014-2015시즌 개막전 프라이스닷컴 오픈에서 우승해 전년도 우승자만이 나가는 이 대회 출전권을 확보했다.

PGA 투어는 배상문의 현지 매니저 보도자료를 인용해 "배상문이 합법적인 체류기간 내에서 미국에 최대한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입대 대상자인 배상문은 2013년 미국 영주권을 얻은 뒤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병무청이 국내 체류 기간이 긴 배상문을 미국 실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아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배상문은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1월 이내에 국내에 돌아와야 해 미국 내 선수 생활이 어려워졌다.

/장병호기자

스완지 시티·볼턴 FA컵 32강 진출

기성용·이청용 부재에도 승승장구

기성용이 빠진 스완지 시티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2강에 진출했다. 이청용이 빠진 볼턴 원더러스도 함께 32강에 합류했다.

스완지 시티는 4일(한국시간) 영국 버켄헤드의 프렌턴 파크에서 열린 2014-2015 FA컵 3라운드(64강전) 경기에서 홈팀 트랜미어 로버스를 상대로 6-2 승리를 거뒀다.

이날 경기에서 스완지 시티는 2015 호주 아시안컵 참가를 위해 한국 국가대표팀에 차출된 기성용을 비롯해 윌프리드 보니, 질피 시구르드손 등 주전 선수들이 대거 명단에서 빠지거나 벤치에 앉았다. 그러나 3부 리그 팀인 트랜미어 로버스를 꺾기에는 충분했다.

전반 34분 스완지 시티의 네이선 다이어가 선제골을 뽑았다. 후반전에서는 무려 5골을 트랜미어 로버스 골대에 퍼부었다. 바페팀비 고미스가 2골을 터뜨렸고 토머스 캐럴, 마두 바로우, 웨인 라우틀리지가 1골씩을 보탰다.

4일(한국시간) 영국 버켄헤드 프렌턴 파크에서 열린 2014-2015 영국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 스완지 시티가 홈팀 트랜미어 로버스를 6-2로 꺾었다. /AP뉴시스

볼턴의 마크론 스타디움에서는 홈팀 볼턴 원더러스가 위건 애슬레틱을 1-0으로 꺾고 32강전에 안착했다. 볼턴의 이청용은 아시안컵 출전으로 경기에 함께 하지 못했다. 볼턴은 후반 30분 자크 클러프의 결승골로 힘겹게 승리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프로배구 전적 4일

OK저축은행	3	2	현대캐피탈
도로공사	3	0	IBK기업은행

프로농구 전적 4일

오리온스	20	7	19	21	67
동부	17	20	16	18	71
KCC	13	17	11	18	58
LG	15	20	20	22	77
SK	25	10	21	20	76
전자랜드	12	21	17	17	67
신한은행	16	18	18	17	14	83
하나외환	19	14	22	14	8	77